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7월 22일(음력 6월 1일) 수요일(주간)

사람 개그맨 이수근

"저도 조계종 신도예요"



"키컸으면~, 키컸으면~." 작은 키의 핸디캡을 유머 소재로 활용해 안방을 웃음바다로 만들던 개그맨 이수근(35). 현재 KBS 인기프로그램 '1박2일'의 '운전수'에서 '양평타짜' '장트러블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불심(佛心)을 키우기 위해 나섰다.

2003년 극락사서 인연
법명 '현각'… 불심 키워

이수근씨는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2009 어린이청소년 포교전진대회'에서 조계종 포교국장 부명 스님으로부터 조계종 신도증을 받았다. 법명은 '현각', 재적사찰은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다.

새싹 불자들의 축제날이던 이날 행사에서 이씨는 2부 문화공연 한마당 사회를 맡았다. 이날 조계사 도량 곳곳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던 2000여 어린이들은 문화공연 사회자로 이수근씨가 소개되자 삽시간에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이씨는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다운 매끄러운 공연 진행으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공연 진행을 마치고 조계종 신도증을 전달 받은 이씨는 활짝 웃으며 "성불하세요"라며 합장 반배로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란 이수근씨는 늘 그윽한 향내음과 <반야심경>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집 근처 사찰은 놀이터와 마찬가지였다. 마음만 불자라던 그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평창 극락사 여름불교학교 진행을 맡으면서부터다. 무명시절부터 동고동락하던 개그맨 김병만씨를 대신해 극락사를 찾았던 이씨는 매년 극락사 여름불교학교 진행을 맡고 있다. "아이들과 스님이 좋아 해마다 절을 찾았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용 스님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일대학 레크리에이션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동대문 남대문'이라는 듀엣을 결성해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했다. 이후 2000년 '개그콘서트'를 통해 데뷔, 최근에는 KBS 인기프로그램인 '1박2일'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유재석, 강호동에 이어 '좋아하는 개그맨' 3위(7월 15일 한국갤럽 발표)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7월 14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노력하는 연예인, 건실한 불자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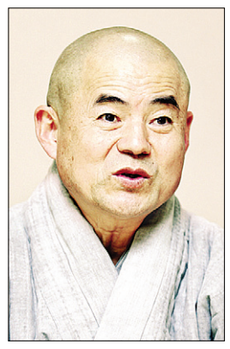
이상언 기자

'정법' 잣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지리산 연대 주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本社 후원

8월 14~18일 실상사서 봉행


무비 스님.


혜국 스님.


향봉 스님.


도법 스님.

오늘날 한국불교는 얼마나 불교다운가? 승속을 막론하고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발 더 나아가 '어떤 것이 불교다운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정립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교가 불교답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정법(正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일과 어긋나는 일은 누구나 구별할 수 있다. 각종 경전과 조사어록에서 정법의 길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정법이라는 잣대로 재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이하 야단법석)이다.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야단법석의 모토다. 그러나 야단법석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 뿐 아니라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오늘의 불교 현실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화엄사 쌍계사 실상사 대원사 벽송사 등 지리산의 사찰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가 설계하고 있는 '움직이는 선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 야단법석은 발제자의 강연 이외에는 미리 짜인 순서나 각본 없이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대형 법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야단법석은 무비, 혜국, 향봉, 도법 스님이 발제자로 나와 강의를 하고 참여 대중이 장시간 토론을 하는 열린 법회공간이다. 움직이는 선원 조실 무비 스님은 <금강경>의 눈으로 한국불교 수행 문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전국선원수좌 대표 혜국 스님은 수행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움직이는 선원 열중 도법 스님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하나의 수행론으로 통합시키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역시 움직이는 선원 열중 향봉 스님은 오늘날 승단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뼈아픈 자성과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승가와 일반인이 5일간 함께 숙식하며(일일 참여도 가능) 불교계의 현실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야단법석은 벌써부터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강연 및 토론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14일: 입제식 및 무비 스님, 1회 210분 △15일: 무비스님, 2회 450분 △16일: 무비 스님 1회 240분, 향봉 스님 1회 210분 △17일: 향봉 스님 2회 240분, 혜국 스님 1회 210분 △18일: 도법 스님 1회 240분.

야단법석 참가 동참금은 출가의 경우 10만원이며 재가자는 20만원이다. (063)636-3031, 3191

임연태 기자

문화재지킴이 '10207' 뜬다

문화재청, 전국 90개 학교 청소년 위촉

1만여 청소년이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1일자로 전국 90개 초·중·고 및 단체 1만207명의 학생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으로 위촉해 전국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은 각 학교 및 단체별 지도교사의 인솔에 따라 학교 특별활동 시간이나, 놀토를 활용해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모니터링·문화재에 대한 홍보·교육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애호정신을 고양해 미래의 문화유산 보호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을 위촉하게 됐다"며 "향후 온라인 카페 등을 개설·운영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활성화하고 상호간 활동경험을 교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8월 중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Hot


활안 스님 14선지식


승원 스님 08불자들


조용헌 23강의실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깨어 있는 이는 단 한 순간이라도
지혜 있는 이와 접하면
곧 지혜의 길을 안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향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한 제 20 회 법왕사 개산대재
경·율·론(經律論) 삼 장(三 藏) 백고좌대법회

법왕사가 창건되지 20년을 맞이하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백고좌 법회를 경.율.론 삼장의 주제로 봉행됩니다.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과 함께하는 법의 향연에 동참하시기 바라며 주위에 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부처님의 품안으로 함께 나아가기길 발원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7월 20일 ~ 10월 31일(100일간) – 오전 11시 30분(법문)
- 장 소 : 법왕사 신축법당 3층
- 증 명 : 조계종 대종사 무진장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 정무 큰스님
- 문 의 : 법왕사 053) 766-3747

*동참 신행단체, 숙식제공 가능, 사전 예약, 접수 바랍니다.

1일차	7월 20일	정무스님(조계종 대종사)	14일차	8월 2일	도오스님(환성사 주지)
2일차	7월 21일	자광스님(관오사불교/사회복지 화주)	15일차	8월 3일	일장스님(유마사 승가대학학장)
3일차	7월 22일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16일차	8월 4일	종연스님(수미정사)
4일차	7월 23일	각성스님(前화엄사 주지)	17일차	8월 5일	혜경스님(화담정사조실)
5일차	7월 24일	지오스님(범어사율주)	18일차	8월 6일	각현스님(연꽃마을 대표)
6일차	7월 25일	지안스님(은해사/승가대학원장)	19일차	8월 7일	동봉스님(우리절 주지)
7일차	7월 26일	대주스님(정토사 주지)	20일차	8월 8일	동광스님(현광사 주지)
8일차	7월 27일	반산스님(화명선원장)	21일차	8월 9일	혜성스님(삼불사 주지)
9일차	7월 28일	영산스님(해룡사 주지)	22일차	8월 10일	선용스님(아림사 주지)
10일차	7월 29일	현웅스님(육조사선원장)	23일차	8월 11일	정엄스님(군포/정각사주지)
11일차	7월 30일	정목스님(정토원 주지)	24일차	8월 12일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12일차	7월 31일	암도스님(백양사 청량원)	25일차	8월 13일	종석스님(온양/불국사주지)
13일차	8월 1일	지운스님(자비선사 주지)			


정무스님 조계종 대종사 / 법왕사회주
입재법문
일 시 : 2009년 7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법왕사 대법당

종진스님 혜인사 율주
99차 보살계 수계법회
일 시 :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법왕사 대법당
증명큰 : 2만원 (불명 있는분 1만원)

도문스님 조계종 원로위원 / 죽림정사조실
100일차 회향 법문
일 시 : 10월 31일(토) 오전 11시
장 소 : 법왕사 대법당



제 20 회(2009년) 백고좌 대법회 봉행중 세계불교 최대 도심 포교 도량
법왕불교대학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수시모집!!
국내 최고의 명쾌한 큰스님들의 직강!!

- 수강료 _ 매월 10,000원
- 1년 수료 과정 _ 불교기초교리(조계종 교재), 예불문, 반야심경 찬불가, 참선법, 천수경, 금강경, 큰스님 특강 등
- 2년 졸업 과정 _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기신론 등

수업 일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90분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90분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0분 강의)

입학금 : 30,000원 (입학금+교재비)
모 집 : 수시모집 접수중

※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 합니다. 입교를 서두르세요.
※ 부처님 법을 배워 참된 불자가 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 회주 : 정무 큰스님 • 주지 : 실상 스님

법왕사 Tel. 053)766-3747 Fax. 053)767-6095 홈페이지. www.bubwangsa.or.kr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 외래강사의 東大 비판

"이거 원, 대학이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최근 동국대에서 강의 중인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하소연으로 시작된 통화는 시종일관 불평불만 일색이었다. 이유는 동국대가 실시중인 강의포트폴리오와 강의평가 때문.

강의포트폴리오는 교수의 자기평가다. 동국대는 '학사행정 연구시스템(U-Drims)'에 교·강사가 자기평가와 함께 출석부를 비롯한 강좌 관련 자료를 전산입력하게 해놨다.

지인은 "객관화와 계량화를 시도한다 해도 대학에서 과제 및 질문과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상·중·하 등급별 답안까지 각각 따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의포트폴리오를 입력한 다수의 동국대 교·강사들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의평가는 수강생이 교·강사를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제도시행 초기에는 학생의 평가에 따라 매 학기말 공개된 등급이 해당 교·강사의 강좌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했다. 학교 측은 "강의평가 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지인은 "학교에서 강의평가에 대해 2년간 2회 이상 하위평가를 받은 강사는 강의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들었다"며 "취지야 동감한다고는 해도 과제물 부과에도 학생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문제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지 서비스아카데미는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영교 총장은 강의평가공개에 대해 "교수평가 공개는 교수와 협의대상이 아니다. 고객(학생)에게 상품(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왜 공급자(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강의평가 등을 통해 학생·교수간 소통은 유도하면서도 정작 CEO를 자임하는 총장(매니저)인 자신은 교수(스텝)와 소통할 필요성을 외면한 멘트가 아닐 수 없다.

지난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가 다시 주목받는 요즘이다.

교·강사에 강의평가와 강의포트폴리오 작성을 강요하면서, 오 총장 자신은 교수회가 실시한 총장평가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대학경영포트폴리오를 쓰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스텝에 일방적인 과부하를 주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저급한 매니지먼트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명예회복 국회가 '발목'

10·27법난심의위 교육관 예산 1500억 요청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여야 동시 점거로 민생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훼손당한 불교계 명예회복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7월 1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으로 정부에 1500억 원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총 11명 중 9명(위원장 원학 스님,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대기 문체부 차관,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삼보 스님, 윤원호, 허남오, 조남진, 이명묵)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명예회복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2008년 6월 29일 시행되는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동년 9월 9일에야 시행령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구성도 동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법률제정 1년이 지난 2009년 3월 국방부와 연계한 지원단이 구성돼 비로소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위 활동기한이 2010년 6월까지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현행법 상 당시 피해 스님에게 '보상금'이 아닌 '의료비 지원' 만을 명시한 부분도 개정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심의위 활동기한 연장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파행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심의위는 교육관에 관해 올해 8월까지 기본설계조사 후 2010년 6월까지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 2013년 6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속초 낙산사 등 부지기증의사를 밝혀온 후보지를 기준으로 건립계획을 짜 예산 계획안을 국방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단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교육관 건립 입지에 대한 종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당시 단장 노태우)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 5731곳을 수색한 사건이다. 노덕현 기자

"사찰 경내지 자연공원 해제"

조계종 촉구법회·서명운동 벌여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법회가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동시에 열리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7월 22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봉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초하루 법회가 어려운 사찰은 7월 26일 일요법회 등 사찰 형편에 따라 동시법회를 진행한다.

법회는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여덟 번의 타종과 함께 시작된다. 법문도 자연공원에서 사찰 경내지 해제의 당위성과 본말사 주지 결의사항에 따른 사찰별 실천 활동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서명운동을 펼친다. 특히 서울 조계사 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법석에 올라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에 대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각 사찰 별로 30~100부 배부된 서명용지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서명운동은 8월 동시법회 다음날인 8월 21일까지로 8월 28일까지 총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서명운동은 9월 1~25일 펼쳐지며, 10월 2일까지 총무원에 취합될 예정이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국사찰 동시법회와 서명운동 전개는 7·2본말사주지결의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며 "이미 각 사찰에 게시된 현수막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범불교도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7월 14일 현재까지 종단의 사찰경내지 자연공원 해제 요구에 관한 정부 측의 공식제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 학술세미나'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9월 25일

지난 여름, 종교편향 종식을 외쳤던 8·27범불교도대회의 열기를 잇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종교와 정치권력'과 '불교와 정치권력'의 2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주제 '종교와 정치권력-역사적 전개와 교훈'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 서구 등에서의 종교와 정치권력의 갈등을 조명한다.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창익 한신대 연구교수와 장석만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한다.

제2주제 '불교와 정치권력-최근 100년간 한국에서의 전개와 문제점'에서는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종교의 정치세력화와 불교차별 과정 등을 조명한다.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를 비롯해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김광식 부천대 교수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02)2011-1816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임시종회

8월 10~14일 개정

조계종 제181차 임시 중앙종회가 8월 10~14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제180차 회의에서 이월된 종법개정안을 비롯해 3월 31일부로 임기만료된 교육원장 선출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건, 동국대 감사 추천건,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의 건, 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에 '사랑의 모포'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캄보디아 4개 교육 사업장에 '사랑의 모포'를 지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8년 '사랑의 모포 보내기' 캠페인으로 총 2945만원을 모금해 2008년 총 4200장의 모포를 전달한 데 이어, 2009년에는 7월 1일까지 3개 마을 464가구에 2300장의 모포를 전달했다. (02)455-9352 노덕현 기자



사랑의 모포를 전달하는 지구촌공생회 현지활동가.

법용 스님 '공권정지 3년' 판결

교단자정센터 "마곡사 '특별관리교구' 지정해야"

말사주지 품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1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법용 스님의 마곡사 주지직은 자동 박탈됐고, 새 주지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대광 스님(마곡사 재무국장)은 공권정지 6월을, 금품제공을 인정한 지용·서호 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호계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록축제와 관련한 말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장부미기입과 전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곡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광 스님의 형량이 1심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은사인 주지스님을 위한 행동이었음이 참작된 것"이나 "지용·서호 스님에 대한 형량이 늘어난 것은 주지직을 놓고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마곡사 주지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해도 마곡사 내의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마곡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차기 주지선거를 치루기에 앞서 총무원이 마곡사를 '특별관리교구'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주지대행은 직무대행이던 청룡 스님이 14일 돌연 사퇴함에 따라 총무 두타 스님이 맡고 있다. 마곡사 주지 재선거는 법용 스님의 공권정지 판결 후 30일 이내(8월 12일 한) 치러진다. 조동섭 기자



50선지식과 함께하는 화엄산림 지장산림법회 및

조계사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조계사에서는 343일간 원로대덕 큰스님 50분을 모시고 화엄경과 지장경을 공부하며, 선망부모에 대한 49재와 가족을 위한 구병시식을 각각 7회에 걸쳐서 봉행합니다. 이번 조계사 조상천도법회에 동참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금) (음 윤 5.25) ~ 2010년 6월 24일 (음 5.13),1~6재 매주 목요일 10시 (매회 49재 9시)

입 재		07월 17일(음 윤5.25)	화엄경총설	총무원장스님
1회	1재	07월 23일(음06. 02)	세간정안품	월운스님
1회	2재	07월 30일(음06. 09)	노사나품	종하스님
1회	3재	08월 06일(음06. 16)	여래명호품	법산스님
1회	4재	08월 13일(음06. 23)	사제품	종진스님
1회	5재	08월 20일(음07. 01)	여래광명각품	총무원장스님
1회	6재	08월 27일(음07. 08)	보살명난품	무관스님
1회 49재		**09월 03일(음07. 15)**	정행품	현각스님
2회	1재	09월 10일(음07. 22)	현수보살품	도문스님
2회	2재	09월 17일(음07. 29)	불승수미정품	혜자스님
2회	3재	09월 24일(음08. 06)	보살운집묘승전상설게품	정념스님
2회	4재	10월 01일(음08. 13)	보살십주품	현해스님
2회	5재	10월 08일(음08. 20)	범행품	성타스님
2회	6재	10월 15일(음08. 27)	초발심공덕품	근일스님
2회 49재		**10월 22일(음09. 05)**	명법품	정휴스님
3회	1재	10월 29일(음09. 12)	불승아마천궁자재품	정무스님
3회	2재	11월 05일(음09. 19)	아마천궁보살설게품	법등스님
3회	3재	11월 12일(음09. 26)	십행품	보각스님
3회	4재	11월 19일(음10. 03)	십무진장품	지하스님
3회	5재	11월 26일(음10. 10)	여래승도솔천궁품	도업스님
3회	6재	12월 03일(음10. 17)	도솔천궁보살찬불품	혜인스님
3회 49재		**12월 10일(음10. 24)**	십회향품	무비스님
4회	1재	12월 17일(음11. 02)	십지품	암도스님
4회	2재	12월 24일(음11. 09)	십명품	혜남스님
4회	3재	12월 31일(음11. 16)	십인품	무진장스님
4회	4재	01월 07일(음11. 23)	심왕보살문아승지품	자광스님
4회	5재	01월 14일(음11. 30)	수명품	인환스님
4회	6재	01월 21일(음12. 07)	보살주처품	지성스님
4회 49재		**01월 28일(음12. 14)**	불부사의법품	시몽스님
5회	1재	02월 04일(음12. 21)	여래상해품	태응스님
5회	2재	02월 11일(음12. 28)	불소상광명공덕품	홍교스님
5회	3재	02월 18일(음01. 04)	보현보살행품	향적스님
5회	4재	02월 25일(음01. 11)	여래성기품	영조스님
5회	5재	03월 04일(음01. 18)	이세간품	도법스님
5회	6재	03월 11일(음01. 25)	입법계품	월파스님
5회 49재		**03월 18일(음02. 01)**	지장경총설	묘허스님
6회	1재	03월 25일(음02. 08)	도리천궁신통품	원종스님
6회	2재	04월 01일(음02. 15)	분신집회품	현고스님
6회	3재	04월 08일(음02. 22)	관중생업연품	법만스님
6회	4재	04월 15일(음03. 01)	염부중생업감품	총무원장스님
6회	5재	04월 22일(음03. 08)	지옥명호품	인묵스님
6회	6재	04월 29일(음03. 15)	여래찬탄품	성우스님
6회 49재		**05월 06일(음03. 22)**	이익존망품	혜창스님
7회	1재	05월 13일(음03. 29)	염라왕중찬탄품	현관스님
7회	2재	05월 20일(음04. 05)	칭불명호품	지선스님
7회	3재	05월 27일(음04. 12)	교량보시공덕품	혜총스님
7회	4재	06월 03일(음04. 19)	지신호법품	옹산스님
7회	5재	06월 10일(음04. 26)	견문이익품	세민스님
7회	6재	06월 17일(음05. 03)	촉루인천품	청화스님
7회 49재		**06월 24일(음05. 10)**	회향법문	총무원장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

대입에도 종교편향?
종자연 대처 주문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대상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교과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최근 "2010학년도 입시에 47개 대학이 2만여 명을 뽑는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위주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채용이 대학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뽑겠다는데,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소관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이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의든 타의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한다"며 "일부 종교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 공정 채용위해 교과부는 관리 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인 대화마당
종교환경회의 18~19일

종교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생명평화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대화마당이 열린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8월 18~19일 1박2일간 김포 용화사에서 '생명의 강, 깨달음과 영성의길'을 주제로 '제8회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50여 성직자들은 경인운하건설 현장을 탐방하고, 깨달음과 영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저녁과 아침에는 명상과 산행도 열린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화려함에 혹하고 기운에 감동
연등축제 외국인모니터… "외국인 방문객 전용시설 역차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펼쳐진 연등축제, 외국인은 어떻게 봤을까?

외국인들은 연등축제를 '형형색색의(colorful)' '다양한(various)' '붐비는 대중(crowded koreans)' '우아하고 격식 있는 (elegant, classic)' '압도적인 아름다움(overwhelming beauty)'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14일, 2009년 연등축제에 동참한 외국인 조사단의 응답을 종합해 <2009 연등축제 외국인 모니터 조사연구>를 펴냈다.

조사단은 미국과 중국, 독일, 브라질 국적자 등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4명과 1년 미만 거주자 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연구는 축제조사 전문연구기관인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대표 안이영노)가 맡았다.

조사 응답자들은 연등축제에 대해 △고전적이며 현대적인 축제 △역동적이면서 우아하고 흥겨운 축제 △매력적이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축제 △모든 이에게 개방적인 대규모 축제로 인식했다.

조사단은 연등축제의 경험을 화려한 색과 소리, 참여자의 정신, 불교적 가르침으로 분류했다. 이것을 통틀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의 매력, 특유의 기운과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해 동양적인 무형의 요소와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쾌하고 깨끗하나 편의시설은 다소 불편한 축제라는 이미지를 비롯해 외국인 방문객의 전용시설은 역차별로 인식돼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불교를 배울 기회가 적다는 점과 부족한 통역 서비스도 외국인의 한국문화에의 접근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국인들은 외국인 방문객 전용시설이 한국인과 어울리는 기회를 앗아간다고 인식해 큰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불교문화마당의 각 부스를 디자인으로 유형을 구분해 줄 것과 △제등행렬 동안 가로등과 네온사인을 소등할 것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 △연등축제의 국내외 홍보에 투자를 늘릴 것 등의 제안도 있었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총괄팀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들이 축제 참여 전에는 시각적인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참여 후에는 연등축제의 '기운'에 감동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자료를 토대로 연등축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공비도 자동이체 시대
조계사 · 봉은사 도입… "사찰 재정 투명화가 관건"

사찰 불공비를 자동이체로 내는 시대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연등과 인등비, 매월 음력 초하루 · 보름 불공, 각종 재일 기도비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사찰의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재정투명화 단초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강남 봉은사는 7월 1일부터 신중기도비, 지장재일 기도비 등 각종 기도비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도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기도비를 CMS 서비스로 받고 있다. 시행 첫 달에 172명이 신청해 현재 380건 정도가 접수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경기 수원사(주지 성관), 불국사(주지 가섭) 등도 인등과 불사금, 장학금 등에 CMS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속속 뛰어들고 있다.

각 사찰은 신도들이 종무소를 찾아 직접내거나, 봉은사 입금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도비를 받아왔지만, 미납율이 높아 기도가 중단되는 일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찰 CMS서비스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은 수입구조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불교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CMS서비스가 불자들에게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 공개 등을 통해 투명화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흰 봉투에 넣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존방식보다는 낫지만, 매달 나가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지 모른다면 단순히 '사찰이 뜯어간다'는 인식만 심어 줄 수 있기 때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08년 사찰 수입과 관련된 조사발표에서 "각종 불공수입이 사찰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관리, 감독차원에서 사찰 CMS서비스 도입을 권장한 바 있다.

2007년부터 신도회가 참여한 예산의결과 예산결산 내역 공개 등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봉은사는 "재정 공개에 이어 1년여의 검토 끝에 CMS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각종 편의증대와 더불어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찰의 CMS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삼보 정재 관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광명불교환경연대 출범
여섯 번째 지역조직… 전국 조직 구성 초석


광명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이 7월 12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봉행됐다.

불교환경연대의 여섯 번째 지역조직인 광명불교환경연대가 7월 12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지부 창설을 계기로 전국 조직 구성을 위한 초석을 닦고,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범일 스님과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 이효선 광명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 원명 스님(금강정사 주지)은 "광명을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빈그릇 운동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의식고취 △지역 환경단체 연대사업 등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수경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환경 파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만났다. 대운하로 볼 수밖에 없는 4대강 사업은 국토 죽이기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규탄하며 "한국불교 대표를 자임하는 조계종단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대규모 살상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부처님 돌려주세요"
서울 도봉사 前 주지 매매한 철불 되찾기 나서

"40년 넘도록 법당에서 모셨던 부처님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부처님을 법당에 다시 모시고야 말겠습니다."

서울 도봉사 신도회와 '천년고찰 도봉사철불좌상되찾기 도봉구민대책회의'가 7월 17일 도봉사 철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1호)회수 탄원 서명 고불법회를 봉행하는 자리는 울분과 참회의 눈물로 얼룩졌다.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51호 도봉사 철불좌상.

도봉사 前 주지 Y 스님이 사찰이 경매로 한 기업체에 넘어간 직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박물관에 철불좌상을 팔아넘긴 이후 처음으로 200여 신도들과 지역민이 철불회수를 위해 봉행했다. 이날 도봉사 신도회와 대책회의는 "불법으로 매매된 부처님을 어떻게든 다시 모셔 오자"고 결의했다. 또 서명운동을 전개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도봉사철불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문화재다. 이 불상은 2007년 매매돼 도봉구와 종로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신고 됐다. 도봉사가 사기사건과 경매 과정 등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매매된 것. 신도들은 "적법한 매매라는 주장은 법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어떻게 신도들이 예불하고 기도하는 법당 안의 부처님을 사고 팔 수 있느냐"며 "수리를 위해 모셔가는 것이란 스님들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연태 기자

'심성수련회' 주목하라
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 7월 29일부터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 균형 잡힌 인간성숙의 인재불사를 지향하는 (가칭)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앞두고 지리산 성짓골에서 첫 심성수련회를 연다.

이상주 한국지도자교육원 상임대표(前 교육부총리)와 이택휘 前 서울대 총장, 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 21인이 설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류승국 前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성기조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6인이 고문을 맡은 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주)는 7월 29일부터 하동 지리산 선림원(원장 운거, 실무이사)에서 3박4일간의 수련회를 연다.

7월 29일~8월 1일, 8월 4~7일, 10~13일, 17~20일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여백체험교실'은 명상수련과 생활요가, 잔잔한 시 · 그림의 감상과 실습, 전통예절과 동양학 고전공부, 자연농 자연식과 대체의학 위주의 건강생활 강의, 산책과 휴식 등으로 진행된다. (055)882-5547 김성우 기자

한인 무용가 일 고찰 주지 돼 '화제'

1200년 유서 깊은 일본고찰에 한국인 여성이 주지로 임명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이매방 선생의 제자로서 승무와 살풀이춤 등 한국 전통 무용으로 유명한 김묘선(52)씨.

7월 16일 오사카 한국문화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시코쿠 고찰인 '대일사'(大日寺) 주지를 맡았다.

김씨가 이 절의 주지가 된 인연은 김씨 남편인 오구리 고에이(大栗弘榮) 스님이 2007년 뇌경색으로 입적하면서부터다. 노덕현 기자


前 세계〝미세스 진〟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부처님, 제 친구들도 만나 주세요”

2009 어린이 · 청소년 포교전진대회… ‘어린이청소년 포교총람’ 봉정

“오계를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000여 천진불들이 ‘2009년 어린이 · 청소년 포교전진대회’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역량 강화와 결집을 위한 포교전진대회를 7월 11일 조계사 일대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동련이사장 지현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전진대회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총람’ 봉정식, 포교 우수 사찰 및 지도자 시상식, 포교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수계의식, 어린이청소년 수계 및 어린이청소년 신도증 전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어린이는 미래 한국 불교의 주인공이고 포교의 희망”이라며 “보리수 새싹을 잘 길러 보리수가 고목이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지도자를 비롯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킬 것을 다짐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이 불자가 됐다”며 “모든 어린이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9 어린이 · 청소년 포교전진대회’가 7월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진대회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우수활동 우수지도자와 사찰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한마음선원을 비롯한 속초 신흥사, 서울 옥천암, 익산 사자암, 제주 관음사, 평창 월정사, 나주 심향사가 어린이법회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평택 명법사, 경산 하양포교당, 평창 극락사, 대전 광제사, 의왕 용화사, 대구 은적사, 영천 선재정사, 김천 청암사는 우수사찰로 선정됐다.

행사장은 조계종 대웅전을 비롯해 전시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축제한마당은 불교체험, 전래놀이 등의 연꽃문화재와 동련, 불교레크레이션협회,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좋은벗풍경소리 등 포교단체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는 연극 ‘아빠와 함께 걷는 길’과 에니메이션 ‘마법 삼국유사’ 등이 공연돼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2부 공연 한마당은 극락사 연화유치원, 화계사 어린이회, 옥천암 어린이회, B-BOY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 한마당은 개그맨 이수근씨 사회로 진행돼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회향됐다.

한편 전진대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출판된 어린이 청소년 포교 사료집인 포교총람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공개했다. 총람에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역사를 비롯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활동과 포교를 위한 자원과 활용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비전과 향후 추진 과제 등 3단계로 구성됐다. 그 밖에도 어린이 · 청소년 포교사찰과 중심도량 현황,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포교종책 종령, 종법, 규칙 안내, 관련 국가 정책 자료 등이 첨부됐다.

총람과 관련해 포교원 관계자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성,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이 있는 어린이 포교전담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포교원 내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조직 구성을 계획 ·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승만보살 10대원 잇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최초의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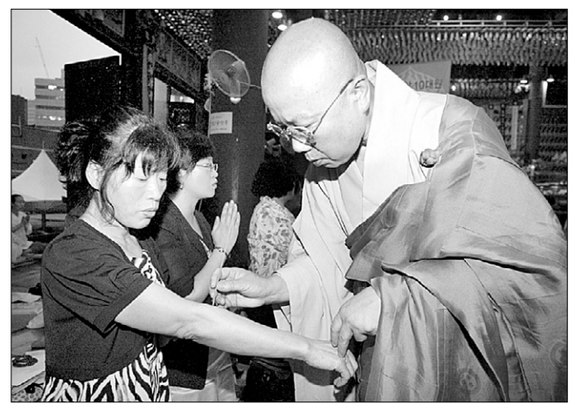
여성불자들이 불교역사상 최초로 오계를 대신해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를 받고 대승보살의 삶을 서원해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이사장 혜총, 원장 이은영)은 7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수계법회에는 <승만경>을 공부한 여성 불자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려는 80여 불자가 계를 받았다.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 원장 혜총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삼귀의, 반야심경,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 계첩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수계식 후 법문에서 “오늘 수계를 받은 모든 분들은 승만부인의 10대원을 세웠으므로 이제 승만부인이 됐다. 10대원을 평생의 의지처로 삼아 수행정진하며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행(行)하며 살라”고 당부했다.


불교역사상 최초로 열린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에서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이 한 여성불자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한편, <승만경>은 재가자인 승만 부인이 정법(正法) 유지와 일승(一乘), 여래장 사상의 대방편을 널리 전개시키기 위해 설법한 것을 수록한 경전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작년 9월부터 <승만경>을 여성불자의 소의경전으로 삼고 前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승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법회는 강의를 공부해 온 여성불자들의 여성불교 실천운동에 대한 발원으로 시작됐다.

글=이상언 · 박선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인재원 상설교육기관 구축에 최선”

불교인재원 2대 이사장에 엄상호 회장 취임

불교적 인재의 발굴에 앞장서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 제2대 이사장에 엄상호 건영육영재단 회장(사진)이 추대됐다.

불교인재원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립 3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이사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허경만 초대 이사장, 엄상호 신임이사장, 박윤흔 상임고문, 동산불교대 안동일 이사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불교인재원이 3년 동안 각계 · 각층의 인재발굴과 육성에 쏟아온 원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재가불자 교육의 중심인 불교인재원 임원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가치관을 튼실히 심고 꽃피우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허경만 초대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인재불사의 중대임무를 맡은 이사장으로 봉공했었던 인연에 재삼 감사함을 느낀다”며 소임을 회향했다.



엄상호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인재원의 창설 의의에 부응해 불교인재원의 상설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인재원은 향후 3년을 ‘교계를 선도하는 재가교육 및 생활실천단체 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상설 교육기관 등록 △계층 · 용도 · 단계별로 현대적 관점의 불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운동을 통한 재가불자들의 불교적 가치관의 사회화 · 생활화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원대학의 형태로 상설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숲유치원, 평생교육원, 대안학교 등 각종 대안교육 기관 설립을 지원 △단계별 사회적 대안교육 실천과 사회적 재가운동 원동력 마련에도 앞장선다.

한편, 엄상호 신임 이사장(법명 사계)은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수행정진 해왔다. 건영그룹 회장을 지낼 당시 구룡사, 여래사 등 불사에도 동참했다. 현재 건영육영재단 회장, (주)프라임데칼 경영고문,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법률 · 취업 등 생활 상담 나선다

대불동, 동문 조직력 강화 시동… 열린법회 실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명호근, 이하 대불동)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출신 동문들의 조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불동은 “7월부터 법률상담 · 기업금융 · 취업 · 자녀의 진학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대불동 회원들이 생활 전반에서 겪을 문제들을 회원 간의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울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불동은 동문이 동문회 사무국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무국은 해당사항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동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사항이든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불동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 동문들이 원하는 주제, 인물을 초대해 강연을 듣는 열린법회를 실시하는 등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명호근 회장은 “사회 각계각층에는 대불련 출신의 뛰어난 동문들이 많지만 조직적인 연계가 부족해 서로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불동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대불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02)720-1963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여름명상단식 수련회**=양주 육지장사는 7월 23~26일 도리산 육지장사에서 여름명상단식 수련회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40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 30일~8월 1일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자신 있는 자기표현을 위한 매너 스피치 등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동감이 있는 교감캠프’도 실시한다. 수련회비는 7만원으로 선착순 50명 접수 가능하다. (031)871-0101

●**여름특강 열린 강좌**=광주불교교육원은 여름특강 열린 강좌를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강의는 남도지역 불교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한다. (062)228-9098

●**간화선 입문 집중수행**=불교인재원은 8월 13~16일 경북 봉화 금봉암에서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집중수행과 8월 21~26일 ‘무상 · 마조 · 원오선사 선적지와 아미산 순례’를 실시한다. 동참비는 각 16만원, 99만원이다. 한편, 고우 스님이 두 행사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02)735-2428

公 대한불교삼보조계종 告

(법인)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의원, 종단 임원진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식

◎ 일시 : 2009년 7월 28일(화) 14시
◎ 장소 : 김해 목화예식장 특실 4층

제6대 중앙종회의원 출범을 축하 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연락처 : 055)338-0089
055)338-0050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 정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수행 납자를 위하여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헌법 제1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도 여러분께 공고 합니다.

---- 아 래 ----

2006년 6월 31일 이전에 임명(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받으신 종도 께서는 2009년 8월 30일 까지 재 갱신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갱신 승려는 규정에 의거 처리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0일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연락처 : 055)338-0089
055)338-0050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수행. 교육. 실천
한국불교승가대학 제1기 졸업식

◎ 일시 : 2009년 7월 28일(화) 14시
◎ 장소 : 김해 목화예식장 특실 4층

제1기 승가대 졸업을 축하 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연락처 : 055-338-0089, 055-338-0050

칭기스칸대학교
한 국 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학 장
대학원 원 장
한국불교재단 이사장

※ 특전 : 승가대학 졸업생은 칭기스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정치외교학과 편입가능.
※ 제2기 승가대학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갓바위에 만불대원탑 건립

선본사, 진신사리 봉안한 만불대원탑 점안 및 제막식 봉행

국내 제일의 약사여래 도량인 팔공산 갓바위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만불대원탑이 세워졌다.

경산 선본사(주지 향적)는 7월 15일 팔공산 갓바위에서 만불대원탑 점안 및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1부 점안의식(법주 동주 스님)과 제2부 제막식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교육원장 대행 법장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병국 경산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5일 팔공산 갓바위에서 봉행된 선본사 만불대원탑 점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갓바위의 갓은 으뜸을 의미한다. 부처님 가르침 중 으뜸은 '지혜'"라며 "오늘 만불대원탑을 조성한 무량공덕으로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이어받은 갓바위 선본사 사부대중 모두 약사여래와 같은 지혜를 구족해 육도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연을 속히 성취하길 발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인사말에서 "만불대원탑을 조성한 것은 더욱 많은 중생들이 갓바위 약사여래의 가피력으로 소원을 성취해 일체장애가 소멸되고 국운이 융창돼 남북이 평화통일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발원하기 위함"이라며 "만불대원탑이 조성돼 깨달음의 세계는 한층 더 깊고 넓게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만불대원탑 조성을 계기로 찬란한 불교문화의 고귀함도 널리 현창하면서 다가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경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만불대원탑은 前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발원을 이어 받아 지관 스님의 증명 아래 국가 경제부흥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무병장수원, 학업성취원, 재액소멸원, 사업무장원, 부모왕생원 5개 발원과 동참 불자들의 소원을 부처님 복장에 넣어 조성됐다.

조동섭 기자, 손법천 대구지사장

교계 최초 록그룹 'BUD 밴드' 탄생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15일 연습실 개원법회

한국불교 최초의 록그룹사운드 'BUD(Buddhist University of Dae-guan-eumsa)밴드'가 탄생됐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회주 우학)는 'BUD밴드'를 지난 1월 15일 결성하고 7월 15일 회주 우학 스님, 주지 밀허 스님, 문화부장 선주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습실 개원법회을 개최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회주 우학 스님 법문, 임명장 수여, 기념연주회 등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BUD밴드는 '우리절 교가'와 '대관음사 원력가'를 연주했고 앵콜 공연으로 '제2의 고향'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7월 15일 연습실 개원법회에서 기념공연을 펼치는 BUD밴드 단원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 옆 건물 지하 70여평 공간에 마련된 밴드공연단 연습실은 음향장비를 갖춘 방음 공연장과 악기 파트별 레슨실, 댄스실 및 연극연습실 등을 갖추고 음악과 무용, 연극을 포함하는 종합예술공연단으로 활약하게 됐다.

밴드팀, 무용팀, 연극팀으로 구성된 BUD밴드는 성인밴드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보컬, 키보드 등 7인조로 운영된다. 단장 강정길, 남부단장 김정배, 여부단장 박은미, 밴드부 팀장 김원기, 무용부 팀장 권미아씨 등 대관음사 신도들이 단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5월 불교대학 신입생 MT에서 신입생 환영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한 BUD밴드는 사찰 행사시 공연은 물론 도심 길거리 포교공연과 각 지역사찰의 포교지원 공연 및 종합예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21세기형 포교와 청소년포교를 위해서는 록그룹사운드가 필수적임을 느끼고 전문 음악인들을 포교해 BUD밴드를 창단하게 됐다"며 "연중 지속적인 음악공양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053)474-8228

김성우 기자

회당축제 29~31일 울릉도서 개최

울릉도 최대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제 9회 회당문화축제가 거행된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7월 29~31일 창종주 회당 손규상(悔堂 孫圭祥, 1902~1963)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2009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테마-기획공연마당,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및 한국문화체험마당 등과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29일 울릉도 저동항 가설무대에서 열리는 '생명사랑 콘서트'와 30일 도동항에서 열리는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는 가수 장사익, 소프라노 김양희 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 독도가 담긴 동해지도를 나눠주고 소망등을 밝히는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과 독도수비대를 비롯한 울릉도 지역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의 행사도 열린다. (02)913-0753

김성우 기자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4' 발간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는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孝편지 모음집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4권(운주사)을 7월 15일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은 '전국교도소 孝 문예대회' 등 당선작과 우편 등을 통해 답지한 편지 등을 엄선한 것이다. 모음집 가격은 1만원으로 책 판매 수익금은 재소자 복지 개선과 사회 정착 지원 등으로 환원된다. (043) 732-5560

노덕현 기자

불심 담아 수용자들 음성공양

청주교도소 14일 찬불가 경연대회 열어

청주교도소 김명철 소장은 7월 14일 '제3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석문사(주지 혜전) 신도 대양기업 조권섭 대표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개월간 연습을 통해 노래를 갈고 닦은 150여 명 불자 수용자들이 참가했다.



7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대회에서 불보상에는 이용팀이, 법보상에 건축시공팀, 승보상과 행원상에는 건축목공팀과 MCT 팀이 각각 차지했다.

찬불가 경연대회 축하 공연으로는 지혜 스님의 살풀이, 가수 임창희의 '오빠는 잘 있단다' '울지 마라' 등 인기가요 열창과 전윤경의 째즈댄스, 사회자 김석중의 품바공연이 이어져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심사위원장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은 "수용자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참회하고, 삶의 희망을 다져 더욱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 앞서 독경대회 개최 등 교정활동에 앞장서온 혜전 스님이 김명철 청주교도소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혜철 충청지사장

불교합창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KBS홀에서 개최하는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 참가자를 공모한다.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작곡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합창경연대회 및 원로불교음악인을 위한 특별음악회(연합합창제)로 꾸며진다.

경연대회에 참가할 단체(전문 성악인은 제외)는 8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 10여개 합창단을 선발하는 예선은 10월 10일 오후 2시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예선에서는 찬불가는 자유곡 2곡을 선곡할 수 있다. (02)722-2606

김성우 기자

이주노동자 선수련회

예산 수덕사 주최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6월 28~30일 이주노동자 등을 초청 선수련회를 개최했다. 네팔 이주노동자 10여 명과 필리핀,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 20여 명은 수덕사 심연당에 머물며 자기긍정 명상과 108배, 단청과 만다라 그리기 등을 체험했다.

3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와 이제 17개월 된 딸을 둔 도미티 닝(27)씨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하러 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덕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찾아온 참가자들이 산사에 들어 자연을 벗 삼아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었으면 한다. 또 한편으로 삶에의 새로운 의지와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서 연수교육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원장 원해)은 7월 13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해 태고종 종단사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봉원사 참배 등을 봉행했다.

이번 교육일정에는 태고종 연합신도회(회장 김동훈) 산하 신도회장단 및 각 사찰별 신도회 임원 80명과 담당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태고종도들의 예방을 받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충북교구 신도회의 단합된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애종심을 갖고 앞서가는 종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종무원장 원해 스님은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신도회 임원들이 전통종단의 일원임을 함께 느끼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부하고 함께 배우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이웃 종교 RELIGION

‘하나의 마음’ 으로 화쟁하자

종교청년協, 종교 갈등 극복 포럼 열어

7대 종단이 한국의 종교, 사회의 화합과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종교청년협의회(사무총장 강명구)는 7월 15일 천지일보 세미나실에서 ‘종교, 사회 과연 상생의 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7월 15일 7대 종단 지식인들이 모여 종교 갈등 극복 포럼을 열었다.

언론인 이규원씨의 사회로 김성영 전 성결대총장(개신교), 정용상 동국대 법대 학장(불교), 윤법달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원불교),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이 발제에 나섰고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 언론인 신민형씨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성영 총장은 발제에서 “3·1운동 당시 주요 종교단체는 종파를 초월한 협력의 미덕을 발휘해 조국 독립에 대한 희망의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계와 정부는 종교편향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이나 언행을 삼가야 모든 종교계가 마음껏 사회를 구제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상 학장은 발제에서 “한국사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전형적 양상을 띠는데 불행하게도 지엽적 교리논쟁이나 정부의 종교편향정책 등을 통해 심각한 종교갈등 및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에 ‘하나의 마음’으로 화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효의 ‘화쟁사상’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천도교 김동환 교령, 이완희 성균관 재단이사장, 이창환 성균관 관장, 신태호 회장(세계침구연합회 부주석), 원불교 김선태 운영위원, 개신교 이주영 목사(글로벌 대학교 본부장)등 각 종단 지도자들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종교청년협의회는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등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종교간 관용과 조화를 목표로 2008년 11월에 창립됐다. 현재 각 종단을 대표해 10명의 청년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주선 △‘종교상생 포럼’ 운영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제언 등 정책자료 지원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종교간 협력사업 전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때”

미래목회포럼 ‘크리스천과 죽음’ 토론회가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와 김 할머니의 존엄사와 관련해 개신교인들이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세대 목회자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신화석 목사)은 7월 10일 제11회 정기포럼 ‘크리스천의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열었다.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죽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권수 목사는 개회사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를 느꼈다”며 “죽음, 자살,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는 “지금 한국사회는 죽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별 연고도 없으면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노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죄업의식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대전새로남교회)는 故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기독교계에서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기도를 한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조 교수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 삶이 있다.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이 둘을 분리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순서에서 기독교계가 기도와 찬양으로 참여한 것은 전 국민적인 예를 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4대 서비스 실천 명품 복지관 되겠다”

연꽃마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 7월 16일 개관식 봉행

연꽃마을이 어르신을 위한 또 하나의 명품복지관 만들기에 나섰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 이하 복지관)의 개관식을 7월 16일 봉행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커팅식(왼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복지관 전경 (오른쪽).

개관식에는 각현 스님을 비롯한 박성중 서초구청장등 관계자들과 지역 어르신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각현 스님은 개관식에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명품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관장은 “복지관 4대 서비스 정신인 ‘항상 예절바르게, 정성스럽게, 밝은미소를, 참신하게’를 실천해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관식에 이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실버밴드와 강남민속무용단 등 공연 팀이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이 잇따라 복지관 운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방배동에 소재한 (주)CJ 오쇼핑은 복지관에 투입된 총 사업비 122억 원 중 3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서초구에 기부했다. 또한 박찬준 KJI 파이낸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2000만원을 기부, 차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24㎡(약 947평) 규모로 이·미용실, 당구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장기바둑실, 다목적실, 서예실, 주간보호센터 등의 공간을 갖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은 영유아 보육시설도 마련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영유아 5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서정어린이집’이 복지관에 마련돼 장애유아의 보육 소외현상을 방지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를 주 사무소로 하는 법인만 수탁운영에 참여하게 해 경인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꽃마을은 경기도에 법인사무소를 두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탁월한 운영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수탁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각현 스님은 “경기도지역에 한정돼 있던 연꽃마을 노인복지사업을 서울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복지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한·일 장애우 협동 연극

24일 전통문화공연장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뜻 깊은 화합의 마당이 열린다.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7월 24일 19시 30분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일본의 쇼난 카메구미(湖南 龜組) 극단을 초청해 장애인 협동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주의 꽃 생명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일본장애인 판토마임 극단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초청공연에 앞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연단과 원심회 두드림은 합창과 난타공연 등을 선보인다.

쇼난 카메구미 극단은 일본 도쿄의 남부지역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일본장애인 판토마임 극단이다. 한편,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사물놀이단과 (사)이천장애인복지연합회 합창단은 쇼난카메구미 극단과 7월 26일 15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도 합동 공연할 예정이다. (010) 5118-2437

이나은 기자

부산 최초 정주도우미사업 실시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7월 10일 발대식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정련, 이하 복지관)은 부산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0일 정주도우미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가졌다.

복지관은 7월 10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주도우미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3명의 정주도우미가 참가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법제센터 손행선 위원이 진행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이해, 정주도우미의 필요성과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정주도우미사업은 최근 부산 사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5년 북한주민들의 초기정착을 위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사업’에 이은 것이다.

정주도우미들은 생활필수품, 지역사회인식 등 기초적응을 마친 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서적·문화적·취업안내 등의 지원을 도와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부산에서 처음 생기는 사업이니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1)264-9033

이나은·이은정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해외봉사활동 활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 봉사단과 경주병원이 각각 해외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 참사랑봉사단은 7월 2~9일 필리핀 알바이(Albay)주 리가오(Ligao)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야학당 짓기, 페인트칠, 벽화보수, 하수도 정화 등을 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봉사단(단장 정필현)은 6~12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봉사활동은 경주병원과 경주병원 불교회와 공동 주관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 국제화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동섭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9년 7월 28일(화) 오후 8시부터
2009년 8월 3일(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보림회서울지부장 청 봉 합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buddhanews.com

화엄종 원류 '지론사상' 본격 연구 신호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8월 7~8일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국제학술대회

'지론(地論)사상'은 중국이 인도로부터 유식(唯識)을 최초로 수용하면서 발생됐다. '지론사상'은 유식 계열 중 〈섭대승론〉 중심의 섭론종이나 현장 스님에 의한 법상종에 앞선 까닭에 인도의 사상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또, 〈화엄경〉의 한 부분이기도 한 〈십지경(十地經)〉의 해설서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수용해 형성된 까닭에 화엄종의 원류로 진단된다.

중국불교사상사에서 지론종은 화엄종 설립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상을 비롯한 중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론사상'은 국내는 물론 중국, 유럽 학계에서 화엄학 연구자들에 의해 화엄사상의 전신으로만 연구됐을 뿐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본학계에서만 1990년대에 이르러 돈황문헌 해독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흐름이 형성되면서 몇몇 전문학자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8월 7~8일 금강대 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을 주제로 제4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지론사상'에 관한 단일주제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행사에는 세계적인 화엄학 권위자인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와 지론종 전문가인 아오키 다카시 선생(일본 아자부고교)을 비롯해 로버트 지멜로 교수(미국 노틀담대), 장뤠엔양 교수(중국 중국인민대) 등 해외석학과 최기표·김천학·석길암 등 금강대 연구자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안성두 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학계에서 미개척분야였던 지론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계 불교학계에서도 지론사상을 불교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2월 28일 〈대승사론현의기〉를 주제로 개최했던 제3차 국제학술대회. <현대불교자료사진>

#이시이 코우세이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는 특별강연 '지론종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돈황문헌 기반의 연구개요와 새로운 관점에 의한 연구상황 및 과제 등을 소개한다.

이시이 교수는 △돈황사본의 연구 개요 △돈황문헌 중 지론종 문헌 판단 기준 △천태·화엄·기신론 관련 지론종 연구 성과 등의 연구성과 정리에 이어 돈황사본 중 지론종문헌을 전산화할 것과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본을 비교 연구할 것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 논문은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가 1995년 발표한 '돈황문헌 중의 지론종의 여러 문헌에 관한 연구'의 후속논문이다. (7일 오후 5시 10분 발표)

#로버트 지멜로

로버트 지멜로 교수는 주제발표 '지엄·의상의 사상에서의 지론종 흔적'을 통해 지론의 육상(六相)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상의 '일승법계도'와 지론종의 관계를 고찰한다.

로버트 교수는 "의상은 유가사(瑜伽師)가 원교(圓敎)에 대한 최상의 통찰을 했음을 인정했다"며 "화엄전통이 전통적인 교판을 따른다해서 그에 따라 세친을 대승시교(大乘始敎)에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유가행파 불교와 화엄종의 시작을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7일 오전 10시 30분 발표)

#장뤠엔양

장뤠엔양 교수는 화엄학을 전공한 중국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신진학자다. 장 교수는 '영변(靈辨) 〈화엄경론〉에서의 마음'을 발표한다.

장뤠엔양 교수는 〈화엄경〉 십지품의 삼계유심(三界唯心)에 대한 북위시대 영변의 해석을 통해 〈화엄경론〉과 지론종의 관점을 비교할 단서를 제시한다. (7일 오전 11시 30분 발표)

#김천학

김천학 금강대 HK사업단 교수는 '〈법경론〉의 사상적 입장'을 발표한다.

〈법경론〉은 지론종 저술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쓰인 독립저술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의 발표는 최초의 본격적인 〈법경론〉 연구다. 그는 〈법경론〉의 사상적 경향을 지론종 특유의 '식설(識說)'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7일 오후 13시 30분 발표)

#아오키 다카시

아오키 다카시 선생은 돈황문헌 중 지론종 관련 사본만을 연구해온 전문학자다.

아오키 선생은 주제발표 '돈황사본으로 본 지론교학의 형성'에서 지론사상의 형성과정을 사상과 인물, 저술 등이 망라된 독창적인 계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한다. (7일 오후 2시 30분 발표)

#오카모토 잇페이

오카모토 잇페이 일본 혜천여학원대 교수는 정영사 혜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일본의 신진학자다. 혜원은 삼론종의 길장 및 천태종의 지의와 함께 6세기 말 중국불교를 대표하는 3대 불교사상가 중 한사람이다.

정영사 혜원은 그에게서 지론과 섭론의 융합 혹은 착종이 일어나 삼론종과 천태종은 물론 화엄사상 성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카모토 교수는 '정영사 혜원의 저작과 전후관계에 관한 시론'을 통해 정영사 혜원 저술의 성립순서에 관한 검토를 시도했다. (7일 오후 3시 50분 발표)

#석길암

석길암 금강대 HK 연구교수는 '지론종과 〈대승기신론〉'을 발표한다. 석 연구교수는 〈기신론〉의 용어와 개념들이 1990년대 이후 발견된 지론종 저술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신론〉이 지론종의 용어를 차용해 번역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8일 오전 9시 30분 발표)

#최기표

최기표 교수는 '천태의 지론학 수용과 비판'을 통해 후대에 지론학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합불교로서 천태교학이 수립됐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천태지의 대사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천태불교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십지경론〉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지론학파의 학설을 적지 않게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10시 50분 발표)

#김경남

김경남 박사는 일본 동경대에서 〈십지경〉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신진학자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 '보리류지역 〈제경론〉의 역어에 대해서'에서 지론사상의 발단이 되는 〈십지경론〉의 번역자인 보리류지의 번역어에 나타나는 경향을 집중적으로 천착했다.

김경남 박사는 "여실수행(如實修行)에 대해서, 보리류지가 자주 역어에 사용하는 '여실(如實)' 또는 '여실수행(如實修行)'은 '교설에 있는대로 수행한다'라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김 박사는 "진여(眞如)도 보리류지에 의해 즐겨 사용됐다"며 "대응어가 없는 곳에서 '진여'를 보충해 번역하거나 '평등진여' 등과 같은 동의어를 거듭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1시 발표)

#임레 하마르

임레 하마르 헝가리 에오보스노랜드대 교수는 주제발표 '중국불교에서 삼계유심의 해석'에서 지론종 사상이 화엄의 '삼계유심'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임레 교수는 "'삼계유심'에 대한 해석을 화엄학 주석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지론종 사상가들의 주석 전통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2시 발표)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일반 참가자에게도 숙식을 제공한다. (041) 731-3621 조동섭 기자

"용선대 석가상 통일신라 조성"

최성은 교수 신라사학회서 주장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현대불교자료사진>

창녕 화왕산 관룡사의 용선대에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 이하 석불좌상)이 통일신라 시대인 722년 무렵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7월 18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제85차 학술발표회에서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명문을 통해 석조석가여래좌상이 통일신라 초기인 722년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창녕 화왕산 기슭 관룡산(해발 740m) 정상 부근 용선대에 자리한 석불좌상(전체 높이 3.18m-불상 1.89m, 대좌 1.27m)의 대좌 한편에서 세 줄에 걸쳐 발견된 명문에서는 '개원십(開元十)…/월입오(月卄五)…/성명(成明)…'의 글자가 판독됐다.

최 교수는 "'개원 10년'은 722년으로 석불좌상이 722~730년 사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8세기 전반 석불로는 720년 무렵 조성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석조아미타불입상이 유일했다.

최성은 교수는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은 8세기 전반의 유일한 편년작"이라며 "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적 상상력 · 염불수행 조명

한국불교학회 ·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차탁마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 02-2260-3130)는 7월 31일~8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적 상상력'을 주제로 여름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되며,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불교학 연구자를 비롯한 가족 동반의 참여가 가능하며, 인근 암자 등을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비 3만원.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010-5501-5589)는 8월 22~23일 고성 건봉사에서 하계워크숍을 연다.

'건봉사와 염불수행'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건봉사와 만일염불회(이종수 동국대 강사) △염불과 주기도문의 비교(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 △염불 수행의 의미(법상 스님, 중앙승가대) 등이 발표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진전사지와 오대산 월정사 등도 순례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진관사 수륙재를 문화콘텐츠로

김응철 교수, 한국미술사연 학술대회서 주장

조선시대 최고의 수륙재 도량이었던 진관사에서 봉행돼 온 수륙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7월 9일 진관사에서 '진관사 수륙재'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1000년 넘게 국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진관사의 사격(寺格)과 역할이 역사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진관사 수륙재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수륙재 관련 불교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향적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Un pèlerinage dans un monastère de France



해인에서 삐에르-끼-비까지

수도원의 체험은 향적스님의 안목과 지평地平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가 향적스님의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종교적 교의가 다르고 의식과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정휴스님 | 시인

동양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서양 가톨릭 수도원의 생활이었으나 향적스님은 겸손함으로 우리 수도사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 수도원의 의식과 생활을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만, 상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F. Luc, abbé | 뻐에르-끼-비 수도원 원장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향기와 기품을 더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곳곳에 스며있는 책,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종교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스님의 글들은 연꽃처럼 둥글고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 합니다. 이해인 | 수녀 · 시인



김시조 PUBLISHERS
도서구입문의
TEL. 02)2278-8728 FAX. 02)2278-8729
E-MAIL. gumsijo@yahoo.co.kr

일주문



법주사, 보은교육청과 협약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7월 10일 보은교육청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백양사 비트요가 특강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8월 13~15일 백양사 경내에서 매일 오후 2시 비트요가 특강을 개최한다. (061)392-7502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7월 23일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사회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한다. (02)723-5101



제2회 평화통일사진전 출품작 모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은 8월 30일까지 '제2회 평화통일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모집한다. (02)720-0531



통일부 차관 초청 포럼 개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7월 24일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 초청 포럼을 개최한다.



제20회 백고좌 대설법회 봉행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7월 9일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지도법사 추대

법련사 총무 묘경 스님이 7월 14일 7월 정기 이사회의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지도법사로 추대됐다.



10주년 기념 평가토론회 개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대표는 8월 14일 만해NGO센터에서 10주년 기념행사 '재가연대 창립10주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02)2278-3417



우리는선우, 제3기 불교청년캠프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건국대 교수)은 8월 5~9일 서울 우리함께회관 6층에서 제3기 불교청년캠프를 개최한다. (02)2278-8672



제8차 해외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은 7월 31일까지 '제8차 해외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9-1080

"종교편향 종식없이는 국민화합도 없어"

범불교대책위 새 위원장 승원 스님



"다종교 · 다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지금까지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은 불교가 관용으로 평화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보면 더 이상 포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8 · 27범불교도 대회 이후 활동이 주춤했던 '헌법파괴 · 종교차별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새 위원장에 승원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 가평 백련사 주지)이 임명됐다.

스님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 받은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강한 어조로 종교편향 종식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에 종교평화위원회가 있음에도 범불교대책위를 재가동 한 것은 종교편향 종식에의 종단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종교평화를 이뤄 국가발전과 국민총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범불교대책위원장에 승원 스님이 임명된 것은 스님이 조계종 기획실장 소임(2006년 9월~2008년 9월)을 살면서 8 · 27범불교도대회를 이끈 경력과 종단 안팎 사정에도 두루 밝기 때문.

지관 스님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둘러봐도 승원 스님만한 이가 없다. 주위에서도 승원 스님을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승원 스님은 "일어난 일은 점검하고 발생할 일은 대책을 세워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종교평화를 위해 범불교도대책위가 출범한 만큼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시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불교대책위는 7월 중 회의를 열어 위원장 승원 스님을 인준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는 8 · 27범불교도대회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조동섭 기자

일면 스님 환송법회 봉행

12일 호국 원광사에서



김태영 군불총회장이 일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 군종교구장으로서 군종교구를 이끌어 온 일면 스님에 대한 환송법회가 7월 12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환송법회에서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해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태영 장군(합참의장)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고별사에서 일일이 후원해 온 대중들을 호명하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 간 이식 수술까지 부처님과 불자님들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군법사 출신도 아니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은혜 1000개 중 1개 겨우 갚은 것 같다"며 "군종교구를 떠나지만 다음 자리에서 남은 은혜를 갚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나눔 기금 뜻 깊은 곳에 쓰겠다"

옹산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 전달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7월 13일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수덕사가 전달한 기금은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와 부처님오신날 등에 진행된 '희망의 등 달기' 등 자비나눔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지관 스님은 "종단 추진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 전달 기금은 뜻있게 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나눔 기금은 지난 7월 7일까지 6억 6000여 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덕현 기자



지관 스님(좌)이 옹산 스님에게 자비나눔 사업동참금을 전달받고 있다.

108산사군례기도회 배삼룡 씨에 보시금 전달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 108산사순례기도회는 7월 14일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선행 보시금 1000만원을 원로코미디언 배삼룡씨에게 전달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병석에 누운 배삼룡씨에게 '선행보시금'을 전달했다.

배삼룡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흡인성 폐렴으로 투병하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년째 체납 치료비를 갚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정선 정암사에서 열린 보시금 전달식에서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원로코미디언 배삼룡 옹이 노후에 병마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의륜 스님 초대 문도회장 돼

일붕법왕문도회 준비위서 추대



의륜 스님

일붕법왕문도회 설립준비위원장 담화 스님(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이사장)은 7월 14일 중앙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초대 문도회장에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겸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의륜 스님을 추대했다.

설립준비위는 "일붕 스님의 원적 13주기를 맞이해 전국 6000여 스님들과 유발제자들이 한데 모여 일붕법왕문도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일붕법왕문도회는 향후 일붕 스님 사상연구를 비롯해 일대기를 영상물과 책자로 발간,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조사전 및 초대법왕 공적비와 제2세법왕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일붕법왕문화재단을 설립, 일붕국제문학상, 일붕국제평화상도 제정할 계획이다.

벽봉 · 성덕 스님 부도 조성

송림사서 10일 제막식



7월 10일 송림사에 조성된 부도탑에 참배하는 스님과 신도들.

전 동화사 주지 벽봉 스님과 성덕 스님의 부도탑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소재한 팔공산 송림사에 조성됐다. 송림사는 7월 10일 경내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겸한 벽봉 · 성덕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벽봉 스님은 대원사 조실로 주석하던 지난해 9월 법랍 68세, 세수 86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벽봉 스님의 상좌인 성덕 스님은 동화사 주지와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6월 법랍 53세, 세수 65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벽봉 스님과 성덕 스님은 30여 불교 미술 · 문화재를 보유한 송림사 재건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입적한 벽봉 스님과 성덕 스님을 함께 추모하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석종 모양의 부도탑 두기를 나란히 조성했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차고 막고 우중전 "우리 절 최고"

출·재가 축구로 하나돼 소통·화합
신흥사 우승트로피 '강원도의 힘'









<맨 위>응원상을 받은 용주사 응원단과 시축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간>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예선경기를 하고 있는 용주사와 화엄사.
<맨 아래>(오른쪽 두 번째부터)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김석두 사무총장.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 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잔디 구장을 누빈다. 운동장 주변의 군중들은 꽹과리며 장구 북을 연신 울리며 이들을 응원한다. "잘한다~ 동화사!" "신흥사 파이팅!"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아 붓던 7월 12일. 전국에서 400여 스님과 신도들이 장거리 빗길을 마다않고 충북 보은종합운동장에 모였다. 저 비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3m 앞의 사물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내리는 빗속에 축구경기가 열린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포교 원력가와 활동가들의 포교역량결집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참가자들의 열기 때문이다.

경기 시작에 앞서 관계자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족구시합이냐, 계획대로 비를 맞고서라도 야외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선수단, 응원단들은 비를 맞고서라도 축구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포교원력을 세워 전법에 힘을 쏟아 오던 이들의 용맹정진이 어디 가겠는가. 참가자들은 대회의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수중전을 불사했다.

불교계에서 조직력 강화는 오래된 숙제였다. 조직력이 떨어지니 포교역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전국의 수 천 명에 달하는 포교원력가와 스님들이 조직화되지 못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최근 열렸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 협의회에서도 "스님과 신도간 교류와 소통의 부족은 결국 불교계 화합과 결속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행사가 추진된 것은 전국 포교국장 스님들이 출·재가를 초월해 한 팀원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데는 축구대회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1회 축구대회에는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흥사, 제4교구 월정사, 제7교구 수덕사, 제8교구 직지사, 제19교구 화엄사 등 총6팀이 출전했다.

팀원은 각 사찰 스님 4명, 신도 4명, 각 지역포교사단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이 날아들자 공 하나에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다.

비옷을 입은 응원단들의 응원막대, 북소리, 징소리, 꽹과리 소리는 보은 전역에 울려 퍼졌다. '감동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잘~한다 화엄사, 더~ 잘한다 용주사"라는 따듯한 응원소리는 불국토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예선전은 용주사와 화엄사, 신흥사와 월정사, 동화사와 수덕사가 맞붙어 화엄사, 신흥사, 수덕사가 준결승전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화엄사는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올라갔다.

예선전에서 아쉽게 패한 용주사, 월정사, 동화사는 실내 체육관에서 족구 패자부활전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패자부활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전이었다. 스님, 신도는 점수를 따는 순간 서로의 손을 뜨겁게 움켜쥐었다. 점수를 얻지 못해도 눈빛 교환과 도닥임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결승전은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화엄사 양대 산맥의 맞대결이었다.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비를 흠뻑 먹은 각 팀원들의 결속력은 법우애로 더욱 촉촉해져갔다.

한마음 한 뜻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신흥사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며 화엄사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제2교구 승리는 우리꺼'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응원 열전으로 대회의 활력을 불어넣은 용주사는 응원상을 받았다. 수덕사는 페어플레이상을, 동화사는 족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신흥사 신도 조남용씨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과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장 대요 스님, 이향래 보은군수,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이기흥 회장 등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입재식, 토너먼트, 준결승, 레크리에이션, 결승전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혜총 스님은 "전국 25개 교구본사에서 모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6개 사찰이 함께하는 첫 대회가 포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출가, 재가, 일선 포교사단이 혼연일체가 될 때 포교는 힘을 얻게 된다. 본 경기를 통해 포교역량을 결집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용주사 김명진 사무차장은 "훌륭하게 졌다. 선수들과 응원단 모두 열심히 했다. 행동하는 불교를 표방하는 불자로서 다함께 참가하고 즐기면서 부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공만 보며 달리는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원력과 신심으로 복전을 일구는 보살과 진배없었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쉼없이 정진하라"

삼광사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신도 생활상도 변화 물결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의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가 중간 반환점을 돌아, 100일 원만회향을 향해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도는 신도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신문화를 바꾸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궂은 날씨도 개의치 않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삼광사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3시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끝나면 피곤할 법도 한데 법당에서 기다렸다가 새벽예불까지 올리고서야 집으로 향한다.

그냥 앉아만 있기도 힘에 부칠 일흔을 넘긴 노보살 변금분(73)씨는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전혀 피곤함이, 눈을 감으나 뜨나 매한가지로 편안해짐을 느낀다"며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겨낸 것 같아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다른 발원으로 기도에 참여한 신도 김귀분(64)씨는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참가하게 됐는데, 정말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며 "나처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원을 세우고 오로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분명 이뤄져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에서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새벽 3시까지 염불 삼매에 빠져있다.

삼광사 수천 명의 신도들이 부르는 관음정진 기도는 이들의 출렁이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가족의 저녁상을 차리고 서둘러 절로 향해 새벽까지 기도를 한 후 첫 차를 타고 귀가하는가 하면,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신도들은 법당 한켠에서 새우잠을 자고 곧장 일터로 향한다. 그리고 이들은 집, 가게, 회사, 학교 등지로 돌아가 맑고 청정한 에너지를 나눴다. 삼광사의 한 법당에서 시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초읍으로, 또 부산 전역으로 번져나가 지역사회의 정신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광사 신도들이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동참하는 진짜 이유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하루 만번 관음정진 신도들 자랑스러워"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도들이 밀물처럼 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진하는 신도들이 너무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100일간의 관음정진 백만독 기도의 중반부에 접어든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사진)은 "하루 1만번씩 관음정진을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스님들도 본받아야할 만큼 교계의 수행풍토에 귀감이 된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관음정진 기도의 원력에 대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 마음 속까지 투명해져 수행할수록 청정한 평상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도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작은 빗물이 계곡에서 큰강으로 이어져 결국 바다가 되듯이, 신도 한분 한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져 이분들이 초읍에서 시작해, 진구와 부산시 전체로 나아가 희망과 용기의 물결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우리 절은 백양산 아래 작은 절이지만 부산시민 모두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는 기도처로서 수행함에 있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청정도량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으로 누구나 주인돼야"

조동종, 행봉 스님 종회의장 임명

대한불교 조동종은 7월 13일 총무원 서울 도선사에서 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임명식을 종정 지명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조동종은 7월 13일 도선사에서 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회의장에는 해륜행봉 스님이 재추대됐다. 종회의장 행봉 스님은 "위로는 종정예하를 모시고 총무원장님을 위시한 종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4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부족한 행보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입법수장의 자리에 재추대해 주신 종회의원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짓과 환심이 아닌 성실과 신뢰,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으로 누구나 주인이 돼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과 이타행을 실천했을 때 밝은 종회, 더 나아가 화합종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상의상존하면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리라 확신하며 끝으로 덕 높으신 종회의원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따라 열과 성을 다해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제주불교여성합창단 불교합창 1위

'월드콰이챔피언십 코리아 2009' 성료

부처님의 법음을 노래하는 지구촌 불자들이 경상남도에 모였다.

'노래하는 인류, 하나 되는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7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등 경상남도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아마추어 합창단과 세계대회에서 입상경력을 가진 우수 합창단이 총집결해 최고를 가리는 자리로 29개국 총 19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국제오픈콰이어대회 불교합창 부문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등 총 25개 팀이 경연해, 1위 제주불교여성합창단, 2위 밀양불교합창단, 3위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 등 상위 14등까지 국내 불교합창단이 차지해 한국 불교계 합창단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천년 세월 품고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여

미타선원 미타갤러리 금강 스님 탁본전

땅끝마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탁본 전시회가 부산 불자들을 찾아온다.

미타선원 미타갤러리(관장 희상)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금강 스님의 돌꽃이 피는 자리3'을 기획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돌꽃으로 핀 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금강 스님이 고찰의 꽃문양만을 모아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돌에 핀 꽃의 향기를 탁본으로 담아낸 50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평소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기 힘든 연잎과 연꽃 등 돌꽃 문양은, 한국 토종꽃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금강 스님은 미황사와 구산선문 등 전국 고찰에서 다양한 문양들을 탁본으로 담아내며, 1996년 '미황사와 구산선문 탁본전'을 시작으로 1997년 '천년의 미소', 2001년과 2009년 '돌꽃이 피는 자리 1, 2', 2003년 '범종문양 탁본전- 천년의 소리'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타갤러리 관장 희상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사진으로는 담아내기 불가능한 문자나 문양의 점획과 선 등 미묘한 부분까지도 표현해내는 탁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돌꽃 속에 깃든 한국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문화와 불교공부 중심도량 만들터"

김해 여여정사 김해포교원 개원

김해 삼계동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는 청정도량 여여정사 김해포교원(주지 도명)이 산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원한 포교당은 삼랑진 여여정사의 첫 번째 포교원으로 여여정사의 주지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의 상좌인 도명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았다.

7월 17일 오전 10시 점안식에 이어 오전 11시 개원법회는 육법공양, 축사, 경과보고, 주지 도명 스님 인사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1시간 가량 여법하게 진행됐다.

주지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님들의 신행과 교육, 다도와 찬불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공부 중심도량으로 신심과 문화를 함께 고취하는 도심포교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 스님은 "가락불교의 발상지인 김해에서 불교문화의 역사를 다시 열어야한다"며 "많은 김해시민들이 이곳 맑은 도량에서 마음을 닦고 정진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개원법회와 동시에 10개월 과정의 제1기 여여불교대학을 개강했다. 아침 · 오후 · 야간반으로 나눠 불자의 신앙생활, 불교의식, 기초교리, 불교예절, 기도방법, 천수경, 고찰탐방 및 현장학습 등을 교육한다.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상현 스님(前 해인사 강사), 빤니짜 스님(미얀마 스님) 등 8명이 강단에 오른다. (055)311-2911 박지원 기자

"부처님 광명으로 경제회복 기원"

부산 대각사, 국제보살계·생전49재 대법회 봉행

(사)화쟁교단의 중심사찰, 부산 대각사(조실 경우)는 7월 8일 '국제보살계 및 생전49재 대법회'를 봉행했다.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 갈마아사리 중국 원광선사 석명애 스님, 교수아사리 가산 스님 등이 100여 명의 불자에게 보살계를 수계했다.

이번 법회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정의 소구소원을 이루고, 나라의 경제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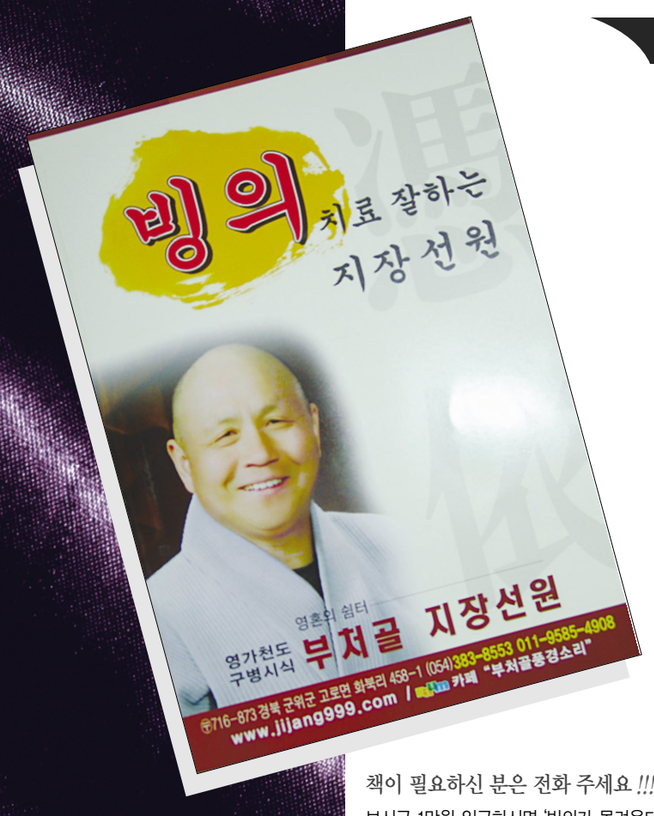
경우 스님은 "한국불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보살계를 통해 모든 국가와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해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박지원 기자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빙의 치료 대가' 혜봉 스님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
보시금 1만원 입금하시면 '빙의가 몰려온다' '아가야 미안해' 책 3권을 보내드립니다.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지장선원]


부처골 지장선원 종정 혜봉 대종사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 중의 하나가 병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 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번지
■ 전화 : 054)383-8553 / 011-9585-4908
홈페이지 www.jijangsw.com
다음카페 '부처골 풍경소리' http://cafe.daum.net/jijangsw/www.jijang999.com
※ 한국심령과학연구회 회원모집 (기공사, 점사, 빙의치료 관심 있으신 분)

부처골 지장선원 종정 혜봉 대종사

"놀토엔 고창복지관에 가자"

염색 · 공예 등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에 인기 짱

"이번 놀토에는 무얼 하지?"

"고창복지관에 체험학습가요!"

가정 내 특별학습 등을 위해 실시중인 놀토(노는 토요일)는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사찰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진행중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에서는 놀토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고창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지관의 놀토 프로그램의 호응은 대단하다.

복지관은 지난달 천연염색프로그램을 운영한데 이어 7월 13일(토)에는 100여 지역청소년과 함께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7월 13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한지공예 프로그램에는 놀토를 맞은 지역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정혜옥 한지공예 강사의 지도에 따라 전북지역 특산품인 한지 제조법 등을 배우며 한지공예품을 제작 · 관람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직접 오방색의 예쁜 한지를 이용해 잎모양의 예쁜 한지를 연꽃. 국화, 매화들의 꽃문양으로 꾸며 실생활에 자주 쓰는 부채와 연필꽂이를 만드는 시간은 인기가 높았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손규리(여 · 대성중2) 학생은 "전북지역 특산품이라지만 생소했던 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한지공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의 한지를 느껴 보람있었다"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063)563-0009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서 달오름음악회 연다

문화복지연대 25일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습을 드러낸 익산 미륵사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문화복지연대(대표 장용철)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에서 '익산 미륵사지 달오름음악회'를 연다.

'I Love Temple 제5회 전국 폐사지 투어'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진각종,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한다.

6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연에서는 금동제사리외호 유물을 유등작업화 한 연못연출 공연과 익산 미륵사지탑 모형 재현공연, 대중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비보이 갬블러팀이 출연하는 달오름음악회로 꾸며진다.

장용철 대표는 "이번 폐사지 투어 콘서트는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폐사지가 더 이상 도난, 도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국민대상 폐사지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02)942-0144 김성우 기자

정읍 일광사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7월 16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윤달을 맞아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이어 개최된 경로잔치는 13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해 난타공연, 마술쇼, 국악한마당 등의 공연과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또 지역내 다문화 가정 5가구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추첨으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승천 스님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며 "상경하애(上敬下愛)의 빛나는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寺 3色' 템플스테이

화엄사 · 천은사 · 도림사에서 3박4일

전남지역 3개 명찰에서 각각 독특한 체험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삼), 천은사(주지 영관), 곡성 도림사(주지 금동)는 7월 2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3차에 걸쳐 '3사(寺) 3색(色)'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남도의 명찰중 문화재 보고인 화엄사에서는 전통불교문화체험이 진행되며, 남방제일 선찰인 천은사에서는 방장선원 참선과 야생녹차밭 포행 등의 일정이 펼쳐진다.

곡성 도림사에서는 도인의 숲길 걷기, 탁족, 반석위의 달맞이, 타종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체험형 사찰답사 프로그램으로 3개 사찰의 특색을 살려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화엄사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에 남도 지역 사찰을 연계해 여러 사찰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남도 명찰의 풍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학원 교직원 백양사서 연수법회

종립학교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시몽)은 7월 20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연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여 교직원이 참석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법문과 암자 참배, 불교 먹거리 강사 김미옥씨의 '건강한 먹거리' 강좌 등을 진행했다.

한편 정광학원은 교직원들의 종교활동을 위해 불교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교직원 법회와 초하루기도를 봉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연수법회를 개최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발전에 공헌한 고인 잊지 말자"

선각총림 옴천사 노 前 대통령 49재 봉행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7월 10일 선각총림 옴천사에서 조계종 백양사 원응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내외귀빈 등 1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를 봉행했다.



7월 10일 선각총림 옴천사에서 봉행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이 날 법회에는 국회법사위원장 유선호 의원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황주홍 강진군수, 이종헌 도의원, 원응 스님이 추모사를 봉독했다. 식전행사로는 고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승무 등 다양한 의식행사가 치러졌다.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은 영가법어에서 "이 시대의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을 잃었으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불자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극락세계로 편히 모시자. 불교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 후에도 추모행렬이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061)433-2233 조동섭 기자

장보고를 만나요

신흥사, 중국 답사여행

장보고의 후예들인 완도 도서지역 어린이들이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 부설 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28일~8월 1일까지 중국 산동성 일대의 적산법화원 등 장보고유적답사를 떠난다.

도서지역 어린이 30여 명을 비롯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1200년 전 동북아의 해상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중요활동지역인 완도 청해진과 중국 산동성 적산법화원 등의 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답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도서지역에 살면서 도시의 아이들처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돼 의미가 깊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前 대불청 전북지구 정인택 회장

"청년불교 활성화 위해 뭐든지 합니다"

정읍하면 누구나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정읍은 사찰 수도 많지 않고 불자수도 적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정읍에서 젊고 활동적인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 중인 정인택 前 대불청 전북지구회장(사진)을 만났다.



정 前 회장은 30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으러 산에 올랐다가 친구를 따라 절에 참배한 것이 인연이 돼 불교에 입문했다.

정인택 前 회장의 불연(佛緣)은 친구 따라 절에 가면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었다. 하지만 정 前 회장의 인연은 룸비니, 불교학생회, 대불련 등을 거치며 소위 엘리트 불자코스를 거치는 동안 원력과 신심이 더하며 지중해졌다.

정읍청년회장을 맡은 1995년부터는 지역사암스님들의 협조를 얻어 올해까지 15년간 자비나눔 사생대회를 개최해왔다.

자비나눔 사생대회는 매년 500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1996년부터는 인근 군 법당인 정읍연대의 법당을 찾아 자신의 군대 생활 경험담을 들려주며 미래세계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한달이면 2번씩 격주로 전주교도소의 미결사(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 방사)를 방문해 재판을 앞두고 후회와 회한으로 번뇌중인 사람들의 안심(安心)을 도왔다.

2001년부터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제10 · 11대 회장을 연임하기도 했던 정인택 前 회장은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불교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헌신적으로 지역불교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젊은 불자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 前 회장은 청년불자간 신심을 북돋는데도 힘써왔다. 매년 전북지역 청년회원들이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고, 낙후된 호남불교 활성화를 위해 2003년에는 전남 불청과 함께 백양사에서 호남불청대회를 열기도 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인택 前 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다"며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 함께 불법홍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이 도량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계가 흥하리라

⑰ 사자 울음소리 들리는 법흥사

철감도윤의 선맥 이은 절중 선사 사자산문 개산

순천 금둔사3층석탑 · 공주 갑사부도 절중 선사 것일 가능성 제기

10년 중창불사로 사격일신 … 보궁 참배객 줄이어









❶ 징효절중 서사의 부도와 탑비 ❷ 소현 스님 시비
❸ 법흥사 적벽보궁석굴과 부도 ❹ 순천 금둔사3층석탑

"세상은 모두 혼탁하고 시대는 오랫동안 혼미하므로 반딧불로는 능히 한밤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고, 아교로써 능히 황하의 탁류를 막을 수 없다."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을 연 징효절중(澄曉折中 826~900) 선사가 국사로 모시겠다는 진성여왕의 뜻을 사양하며 한 말씀입니다. 반딧불로는 한밤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불량배가 많은 시절입니다. 스스로의 값을 알고 사양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평온 할 텐데 세속적 욕망의 불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위대합니다. 가지려는 공부가 아니라 버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이루어지는 대로 따르려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절중 선사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절중 선사는 이승의 인연을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유훈을 남깁니다.

"삼계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만연(萬緣)은 함께 고요한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려하니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여 선문을 수호하고 종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서기 900년 3월 9일의 이 한 말씀이 헛되지 않음은 지금 영월 법흥사에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흥사는 철감도윤(798~868)의 법을 이은 징효절중 선사가 연 사자산문 흥녕선원을 이은 고찰입니다. 자장율사가 세운 다섯 곳의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이니 법흥사의 창건주는 자장 율사이고 중창주는 절중 선사입니다. 그러나 창건(643년) 때나 중창 때의 광휘는 이내 걷히고 오랜 시간 세간의 발길을 멀리합니다. 헌강왕의 보살핌에 힘입어 산문의 흥성을 구가하던 흥녕선원이 궁예에 의해 피폐된 이래 역사의 부침에서 온전하게 몸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흥사는 새로운 도량으로 면모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주지 도완 스님이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합중창불사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며 도량의 위풍이 당당해 지고 있습니다. 흥녕선원이나 법흥사나 '흥(興)'자를 계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도량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만중생을 자비로 섭수하여 무명번뇌를 씻어주고 희구하는 비원을 이루게 하며 심란한 마음에 평온을 드리워 주는 각종 포교프로그램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계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만연(萬緣)은 함께 고요한 것'이라는 절중 선사의 유훈이 오늘날 적멸보궁의 성스러운 기운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흥사에는 부도밭이 따로 없습니다. 숨겨져 있던 산중의 천년고찰에 병화(兵禍)가 그치지 않아 오롯한 시간의 역사를 지키지 못했으니 부도밭이라는 공간적 흔적 또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락전 우측 뒤편에 절중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우뚝하고 이름 모를 스님의 석종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멸보궁 석실 앞에 부도하나가 아담하지만 당찬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절중선사의 부도(강원도유형문화재 제72호)를 쓰다듬어 봅니다. 화감석으로 조성된 부도는 팔각원당형이며 비교적 온전한 몸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개석의 귀꽃이 한쪽 떨어져 나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도 옆에 훤칠한 키로 서 있는 징효대사보인탑비(보물 제612호)는 944년(고려 예종1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446㎝나 됩니다. 귀부는 의젓한 거북의 형상에 여의주를 문 용두입니다. 이수는 화려하지 않지만 위엄과 균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귀의 용들이 물고 있는 여의주는 윤5월을 맞아 순례길에 오른 불자들의 가슴에 숭고한 가르침을 전해주려는 듯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법흥사는 절중선사가 입적한 곳은 아닙니다. 탑비에 의하면, 선사는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당나라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해 서해의 당성(唐城)군 평진(平津)으로 돌아옵니다. 당성군은 지금의 남양지역인데, 선사는 어느 재가자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은강선원(銀江禪院)에 가서 주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성여왕의 국사 초빙을 거절하고 임종을 맞은 것입니다.

문도들은 절중 선사가 입적하자 법체를 석실에 안치했다가 인도의 장례법에 따라 다비하여 사리를 수습합니다. 이때 1000과의 사리를 수습했다고 하니 선사의 수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된 사리들을 곧바로 부도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비를 한 곳이 해안에 있는 절이라 큰스님의 업적을 기릴만한 탑과 비를 세우기에 부적절 했던 것입니다. 이때 흥녕선원도 피폐하여 부도를 모실만한 여건이 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문에는 "그리하여 사리를 모시고 동림(桐林)으로 가서 천우(天祐) 3년(907)에 높이 탑을 세우고 그 금골(金骨)을 안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사의 입적 7년이 지나서야 부도에 사리를 모신 것인데 그나마 선사와 인연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후에 흥녕선원으로 다시 금골을 모시고 와 부도를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법흥사 부도의 양식을 분석하여 제작연대를 11세기로 보는 데는 이런 정황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림은 어디일까요? 여암 최인선 성생은 지금의 순천 낙안에 있는 금둔사를 옛 동림사로 보았습니다. 비문에 나오는 '分領'이라는 지명이 낙안의 옛 이름이고, 이 지역에 절중 선사가 살던 때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절은 금둔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금둔사는 송림사란 이름으로 구전되어 왔고 낙안면 신기리에는 동림이라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비문에 나오는 '고기석분(高起石墳)'이란 말도 '높이 석탑을 세워' 금골을 안치했다는 기록으로 해석 됩니다. 지금 금둔사에는 통일신라말기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3층석탑이 있고 옆에 석불도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금둔사3층석탑이 절중 선사의 사리를 모셨던 탑이라면 석탑형태의 부도로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계에서 더 연구가 진전된다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사 대적전 앞의 '갑사부도' 역시 절중선사의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근거 역시 비문에서 비롯됩니다. 비문에 따르면 절중 선사는 말년에 연거푸 왕들이 승하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 문도 몇 명과 함께 스승의 탑에 참배하고자 쌍봉사로 향했습니다. 그 남행길에 공주에 들러 지역 유지들의 초빙으로 머문 일이 있다는 대목에 천착한 의견입니다. 또 갑사부도의 조성 양식이 쌍봉사 철감 선사의 부도와 많이 닮아 있다는 점과 이 부도가 원래 있던 곳이 계룡산 중사자암터란 점 등을 종합해 내 놓은 의견입니다. 이 역시 좀 더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적멸보궁은 고요합니다. 순례객들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시끄럽지 않습니다. 추녀밑에 돗자리를 깔고 참선 삼매에 든 불자도 있고 땀을 닦아내며 전각을 도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일행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합니다. 적멸의 공간은 마무리 큰 소리도 조용합니다.

그 고요 속에 우뚝 서 있는 부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3호)는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계승했고 문양도 안정적이고 화려합니다. 모양새도 전체적인 균형감이 살아있는데 이 역시 11세기 무렵에 모셔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흥사 경내는 지난 10년간의 불사로 단정합니다. 이제 그 불사의 원력이 흥녕선원의 기상이 서린 선원터에 오늘의 선기를 발현시킬 새로운 '흥녕선원'으로 출현할 것을 믿습니다.

법흥사 경내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좌측의 풀더미 속에 서 잇는 시비 하나를 만납니다.

소현 스님을 기리는 시비입니다. 소현 스님은 법흥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화주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1981년 8월 무덥던 어느 날, 소현 스님은 경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로 입적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스님의 가방에서 화주한 지폐들이 바람에 날렸는데, 사람들은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중생들의 그 탐욕스런 몸짓 곁에서 스님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관(死關)을 넘어야 했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젊은 승려 시인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임도 맡으며 의욕적으로 살았던 소현 스님의 짧은 생애와 시력(詩歷)을 기리기 위해 청화 정휴 진관 성우 현담 정우 청원 원명 스님 등이 세운 시비는 길가에 있지만 눈길을 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청자와 함께'라는 시를 윗단에 새기고 아랫단에 소현 스님을 기리는 도반들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어느새 마멸 파손되고 있는 비와 스님의 시 보다 도반들의 마음을 담은 글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어느 여름날
산꽃처럼 이운
한 사문의 영상을
가슴에 새기며
평소 정을 나누던 도반들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다.

소현 스님의 시비도 하나의 부도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5

인과의 이치 믿고 깨달아라

[원문]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도림사 보광전

[번역]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선해(禪解)]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는가.' 나는 가끔, 절에 오는 불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그러면 대개 불자들은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구하기 위해 온다고 한다. 그럴 때면 적잖이 실망할 때가 있다. 물론, 집안의 평안을 위해 절에 오는 것은 만류할 수 없다.

우리 불자들은 그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내 가족 잘 되게 해 달라고 향하나 사르고 절 한 번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은 그런 곳이 아니다. 불교는 복을 구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종교다. 오늘날 불자들은 참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의 고마움과 불법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제대로 모른다는 느낌이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그런 기복(祈福) 신앙이 아니라 복을 지어 받는 작복(作福)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무조건 복을 구하기 위해 절을 찾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들은 모두 기복 신앙의 원천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심지어 기도와 독경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실, 그것이 자신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을 찾아서 기도하고 독경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상에서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사람은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구제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견성성불이며 또한 그 방법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구해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팔만사천법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금생에 성불할 좋은 기회를 만났다. 몸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불법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났어도 정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생에는 삼악도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여 나의 본래의 모습인 자성을 찾아야만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설사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야만 한다.

또한 불교의 진리는 '인과의 이치'에 있다. 이를 깨달아 선하고 착하게 살아 복을 많이 지어 행복한 삶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흐르는 물은 그냥 두어도 흐르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찰나찰나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미래의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

오늘 윤회전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도림사 보광전의 주련 내용이 바로 성불이기 때문이다. 도림사는 전라도 곡성 동악산 청류동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수목이 울창하고 산세가 아름답고 계곡의 맑은 물이 속세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청량한 곳이다.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876년(신라 헌강왕2) 도선국사가 중창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도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하여 절 이름을 도림사라 했다고 한다. 이후 고려시대 때 지환대사가 삼창을 하였다.

원효대사가 이 산에 도림사를 창건할 때는 산이 움직이며 노래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산 이름을 동악산(動樂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암릉과 암봉이 많은 이 산은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불쑥 불쑥 솟아오른 봉우리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둘러쳐져 있다. 원효대사는 성출봉(聖出峰) 아래에 길상암을 짓고 원효골에서 도를 닦다가 잠이 들었다. 그 때 꿈에서 부처님과 십육 아라한을 친견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효대사는 즉시 성출봉에 올라가 보았더니 한 척 남짓한 아라한 석상들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이후 열일곱 번이나 성출봉을 오르내리면서 아라한 석상들을 길상암에 모셔 놓았는데 육시(六時: 불교에서 하루 여섯으로 나눈 염불독경의 시간)만 되면 천상의 음악이 온 산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현재 도림사 응진전에 봉안된 아라한 상들은 당시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계유여급정륜 백천만겁역미진: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백천만겁의 많은 세월을 지내도다.'

삼계란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를 말하는데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세 가지이다. 욕계는 오관(五官)의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며 색계는 욕계 위에 있는데 색계사선(色界四禪)이 행해지는 세계로,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色)은 있어도 감관의 욕망을 떠난 청정(淸淨)의 세계이다. 무색계는 물질적인 것도 없어진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를 말한다. 즉 무념무상의 정(定: 三昧)으로서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닦은 자가 태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무색계는 색계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삼계는 세간(世間)이라고도 하는, 중생이 육도(六道)에 생사 유전하는 범부계(凡夫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계는 마치 두레박이 우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한량없는 세월을 끊임없이 돈다. 말하자면 삼계를 사는 중생의 모습은 마치 우물물을 긷는 것 같이 보여 백천만겁의 한량없는 세월을 오르락내리락 윤회를 거듭 한다는 것이다. '차신불향금생도 갱대하생도차신: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나 이번 생에 제도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를 할 것인가 하는 뜻이다. 참으로 오늘날 불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경구이다.

옛날 고봉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월(心月)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이며 칠팔월 장마에 운무가 잠시 흘어진 사이 보이는 빛이 여우 빛이다. 그 또한 심월 인 듯 심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여래의 빛이다. 짐승인 개는 하늘의 달을 보고 해를 보라고 해도 아래의 먹을 것만 찾는다. 삼척동자는 아버지가 달달 하면 손가락 끝의 달을 본다. 꼭꼭 숨어 있는 여래를 찾아라. 그것이 극락이고 도솔천이다. 반복적인 생활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인신난득(人身難得: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불법난봉(佛法難逢: 불법 만나기 어렵다)이라 했다. 너의 마음을 찾아라."

이와 같이 가히 성불이란 바로 마음의 달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 조계종 원로의원

원효대사 창건 도림사, 아라한 석상들 길상암에 모셔
인간의 '삼계' 우물 두레박처럼 돌고 도는 것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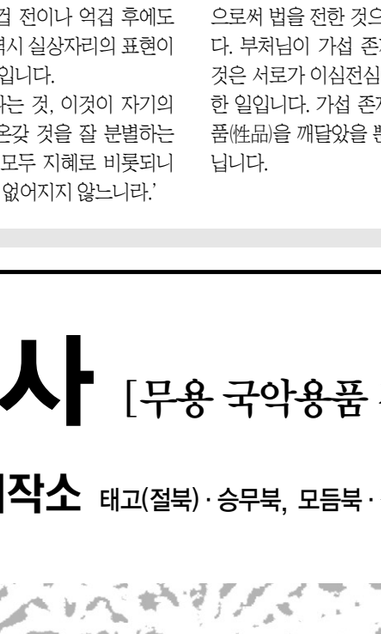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5

여래의 법신은 변하지 않는다

[원문]

一切時中 言語道斷 心行處滅 是自心 故云佛色無盡 智慧亦復然 色無盡是自心 心識 善能分別一切 乃至施爲運用 皆是智慧 心無形相 智慧亦無盡 故佛色無盡 智慧亦復然 四大色身 卽是煩惱身 卽有生滅 法身 常住而無所住 大佛法身 常不變異 故經云衆生 應知佛性本有之身 迦葉 只是悟得本性更無他事.

"언제든지 말이나 문자를 초월하며 사상이나 개념으로 취해질 수 없는 이것이 곧 자기의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부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으며 지혜도 역시 그러하다' 하신 것이니라.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마음이니라. 심식(心識)이 온갖 것을 잘 분별하는데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로 비롯되니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도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고 하신 것이니라.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뤄진 육신은 곧 번뇌의 몸인지라 나고 죽음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여래의 법신은 상(常)이라 변하지 않으므로 경에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응당 불성이 있는 몸인 줄을 알아야 한다' 하신 것이니라. 가섭은 본성을 깨달은 것이지 따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니라."



日 카마쿠라시대(1185~1333년) 달마도 (이즈미 기념미술관 소장).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생하는 것도 아니며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쓰는 성인들의 마음은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고 하신 것입니다.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뤄진 육신은 곧 번뇌의 몸인지라 나고 죽음이 있지만 법신(法性身, 영원불변한 진실의 모습 그 자체)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모든 물질은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 근본실상을 떠난 것은 모두 번뇌입니다. 달마스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래 마음자리를 떠난 그 마음이 번뇌고 업입니다. 착한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업이고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본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자리, 그 순간이 수행이지 봉사하고 법문하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번뇌 아닌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본래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는 '생사가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번뇌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물질과 육신은 시간적으로 항상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여래의 법신은 '상(常)'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 근본 실상은 모양이 없는 자리로서 항상 하기에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일체 현상계 역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불성(佛性)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설]

우리 본래 부처자리 마음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라 했을 때, 성현들이 쓰는 마음은 우주 그대로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본래 '부처님(實相)'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는 우주의 근본 실상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마음 또는 선(禪), 지혜, 불성, 법성(法性) 등 다양한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실상자리인 부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억겁 전이나 억겁 후에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혜 역시 실상자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마음이니라. 심식(인식)이 온갖 것을 잘 분별하는데,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로 비롯되니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도 없어지지 않느니라.'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생하는 것도 아니며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쓰는 성인들의 마음은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고 하신 것입니다.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뤄진 육신은 곧 번뇌의 몸인지라 나고 죽음이 있지만 법신(法性身, 영원불변한 진실의 모습 그 자체)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모든 물질은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 근본실상을 떠난 것은 모두 번뇌입니다. 달마스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래 마음자리를 떠난 그 마음이 번뇌고 업입니다. 착한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업이고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본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자리, 그 순간이 수행이지 봉사하고 법문하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번뇌 아닌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본래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는 '생사가 없는 자리'를 뜻합니다. 번뇌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물질과 육신은 시간적으로 항상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여래의 법신은 '상(常)'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 근본 실상은 모양이 없는 자리로서 항상 하기에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일체 현상계 역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불성(佛性)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섭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세 곳을 통해서 법을 전해 받은 첫번째인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대중들을 향해 들어 보이시자 가섭 존자가 빙그레 웃음으로 답을 하자 "내 정법안장을 너에게 부촉한다" 하셨고 [(靈山會上擧拈花], 다자탑에서 가섭존자에게 자리를 반을 나눠준 것으로 법을 전하셨으며[多子塔前半分座],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임[泥連河畔槨示雙趺]으로써 법을 전한 것으로 선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법을 거듭해서 전한 것은 서로가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섭 존자가 깨달은 진리는 본래 성품(性品)을 깨달았을 뿐 다른 무엇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 / 복청계 / 가영 / 향수나열 / 도량계 /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 교육원장 **해룡 큰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 보암 스님
전문강사_ 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용맹정진 안내

부산 화명동 도심 속의 참선도량 여래선원에서 전국의 재가불자와 함께 용맹정진을 개최합니다.
참선 공부의 참다운 비결은 용맹정진 속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어 큰 공부인이 되십시오.

– 아 래 –
• 일시 :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8시부터
2009년 8월 16일(일) 오후 8시까지 (5일간)
• 장소 : 여래선원 (부산 북구 화명동 금강빌딩 4층)
• 회비 : 7만 5천원
• 접수 및 문의 : 051-362-0339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바루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수정역 1번 출구)
시내버스 15번, 59번, 111번, 121번
(방송통신대학 하차)

여래선원 선원장 현 담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내 뒤만 따라다니면 너는 언제 부처 될래?”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

조계산 중허리쯤에 위치한 천자암에 들어서면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루의 향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정 서넛 명이 손을 맞잡고 에워싸야 할 정도로 굵은 나무줄기에는 용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듯하다. 오랜 세월동안 풍상을 겪으면서 용틀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용들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마주보고 선 나무들의 사연이 궁금해진다. 죽어서도 서로를 못 잊어하는 남녀가 나무로 환생한 것은 아닌지 상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쌍향수(雙香水)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읽고 나면 자신의 빈약한 상상력이 부끄러워진다. 고려 시대에 보조 국사와 보조 국사의 제자인 담당 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갔다. 특히 담당 국사는 왕손(王孫)인데도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출가해 보조 국사의 제자가 됐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 천자암에 나란히 꽂아두었다. 향나무 지팡이는 햇빛과 비의 자양분을 받아 뿌리가 내리고 가지와 잎이 나서 자랐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 주면서 자란 세월이 800년이 넘는다. 두 그루의 향나무는 마치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고 있는 듯해 사람들은 예의 바른 스승과 제자로서 아직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자암에는 천연기념물인 쌍향수와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선승 활안 스님이 있다. 활안 스님은 공부인이 오면 그 사람에 맞는 법거량을 펼쳐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선문답을 즐기는 것이다. 활안 스님은 선문답을 즐기는 것이 되겠지만, 당하는 쪽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서른셋에 통도사에서 자운(慈雲)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방부를 들이며 40안거를 성만했다. 활안 스님은 60여 년을 오직 선방과 토굴에서 치열하게 수행정진 했으며, 경허 선사-만공 선사 -보월 선사 -금오 선사 -월산 선사의 법맥을 잇고 있다. 한번 어떤 목표를 정하면 목숨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진한다는 활안 스님은 서른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활안 스님은 광양의 백운산 토굴에서 죽기살기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년 동안 백운산에서 ‘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父母未生前 是甚磨)’를 화두로 삼아 참선 수행을 했다. 토굴에 가려면 마을에서 세 시간이나 걸어가야 할 만큼 깊은 산중이었다. 이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으니 따로 시간을 내어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기도 했다.

“일을 하다 보면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할 때가 있어. 겨울에 월동하려면 불살개가 있어야 하니 소나무 뿌리가 있길래 그것을 낫으로 자르다가 손까지 베고 말았어. 어두운 게 얼마나 깊이 벤지도 몰랐어. 방에 들어와 상처에 다이징을 바르고 나서 촛불을 켜고 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피는 덜 흘렸을 건데, 가난에도 암가난 숫가난이 있다던데, 살수록 어찌 이리 외롭다냐! 손을 동여매고 부엌에 들어가 된장국을 끓이고 해서 허기를 채웠지. 피를 흘리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쓸쓸하고 외롭데. 밥 한술 떠먹고 죽비 세 번 치고 참선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지금 사는 것도 꿈속이지만, 비몽사몽간에 9척이나 되는 여래가 나타나 당신의 오른팔로 베개를 삼아서 나를 뉘이고는 말씀하시대. ‘너만 외롭냐? 과거의 제불(諸佛)성현도 이 고비를 넘을 때면 피골이 상접해 뼈가 살이 되고 살이 뼈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 오늘의 제불이 모두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미래의 제불도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 하지만 여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남은지라 유리곽에 모셔진 부처님께 삼배하고 이렇게 기도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가진 물심(物心)을 탁 털어서 나에게 다 주시오. 내 배가 부르면 다 주지, 안 줄 것이 없지요. 내 말 안 들으면 뭣 하러 거기 앉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해.”

스님은 그날부터 밥 먹을 때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말 없이 들으시오. 내가 과거 세상에는 끝없이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상황을 바꿔야겠소. 끝없이 많은 상대를 모두 빛이 나게 하고, 상대방이 다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나를 의지하려는 곳에 기쁨을 주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중생을 교화해 고통에서 구해주겠다는 발원이다.

활안 스님은 팔십이 넘은 노구인데도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백장청규 정신에 따라 여전히 밭일을 한다. 감자, 호박, 깻잎, 버섯, 고추, 고구마 등 평상시 먹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여쭈었더니

“어디 밥 먹는 일은 쉽다냐?”라고 답하신다.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어 놓으면 누가 키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잖아. 그러니 내가 키우는 것이 아녀. 생명의 기본은 사계절의 원리와 맞물려 있어. 생명의 본체는 무생(無生)이야. 천지자연 생명계를 다 동원해도 생명의 근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야.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생명이지. 생멸은 공하다, 이것은 생과 멸은 한 생각 설계를 잘 해서 고놈 다 쓰고 내가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 마음에 복이 한결 좋았든 나빴든 간에 다 쓰고 고놈을 또 뒤처리해서 도로 천지의 본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생명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생명이라면 무한(無限)이란 두 글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 고놈을 쓸 줄 알면 그 사람은 지혜의 판단력이 생산된 사람이여. 천지 생명이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가 먼저라면 천지생명이 순서대로 가서 ‘나는 당신의 몸이 되어 주겠다’고 그래요. 생명들마다 그와 같은 본래 원인이 이리저리 걸림 없이 다 엮어져 있거든. 그래서 생명의 본체는 참으로 금강(金剛)의 불가사의라.”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먹는 것 이전에 생명 이전에 우린 불가사의한 금강과도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스님은 갑자기 객을 유심히 보시더니 웃으면서 한 마디 하신다.

“내가 화장품 가게에 가서 눈에 바르는 시커먼 거 하나 사 줄까?”

마음자리 정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다 남의 것
선방 · 토굴에서 60여 년간 치열하게 수행정진

눈에 바른 푸른색 아이세도우가 스님의 눈을 불편하게 했나보다. 조금은 민망스러워서 “예”라고 답했다.

“아야,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네 꺼야.”

“그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내 것이라도 가게를 나오고 나면 내 손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니지. 가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쓰고 나왔지.”

스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마음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다 남의 것이여.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어 행복하려면 우선 밝아야 해. 어두우면 괜히 헛짓하는 거여. 마음이 어두우면 죽도록 일해 놓고 끝에 가서는 한바탕 얻어맞고 나오게 되지. 그러면 ‘내 팔자야’ 하고 신세타령이 절로 나오지.



자기 어두운 것은 모르고. 마음이 밝아 놓으면 그 밝은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뒤처리를 다 해도 그 밝은 지혜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 도리를 알겠는가?”

활안 스님은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수행할 때 수행정진력과 공부의 깊이에 감복한 선방수좌들이 조실로 추대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떨쳐 버리고 천자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 채의 오두막집에 불과했던 천자암을 법당과 선원, 법왕루, 종각, 나한전 등 격을 갖춘 사찰

활안 스님은 ...

1945년 순창 순평사로 출가. 1953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 성만.

1977년부터 천자암 조실로 있으면서 동안거 하안거 때마다 용맹정진을 하고, 매년 백일동안 폐관정진 하는 등 선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 지금은 천자암에 주석하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활안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 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 (주)고진 031)437-1570,1580
• 주문전화 : 02)2004-8215~6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 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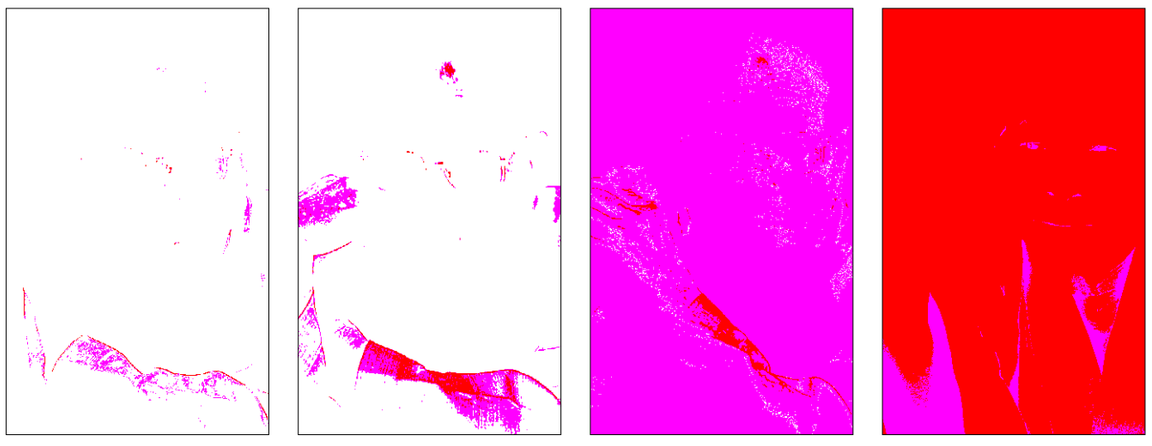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내 한 생각에 행복 열쇠 있어

로 바꾸어 놓았다. 천자암에서 일념정진을 거듭하던 어느 날 환하게 밝아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천지간에 내놓은 오도송은 천자암 법당의 주련이 되어 눈 밝은 참배객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스님의 오도송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용이 새겨진 벼루에 먹을 갈아 붓글씨로 써 주었다.

通玄一喝萬機伏(통현일할만기복)
言前大機傳法輪(언전대기전법륜)
法界長月一掌明(법계장월일장명)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

진리를 통하여 한 번의 할로 온갖 번뇌망상 굴복시키니/ 말 이전의 한 소식이 법륜을 전하도다.



법계의 달빛이 한 손바닥 안에서 밝았으니/ 만고의 광명은 다함이 없네.

"요즈음 축구시합 하는 것을 보면 실력 있는 선수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발이 공을 따라 갈라하니까 실패지. 공이 발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성계는 한밤중에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었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시간과 공간은 심성에서 나온 거여. 심성이 그처럼 준비를 하면 불가능은 없는 거여. 심성이 통달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여. 천지(天地)가 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각자 타고난 생명이 자기를 밝히는 것이여. 그러니 상대방한테는 속아도 자신한테는 속지 말아야지. 내가 밝으면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전부 그 혜택을 받게 돼."

스님은 '노 대통령 49재'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면서 걱정을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멋있어야 하고, 담대해야 하고, 태양같이 밝아야 하고, 소나무 대나무와도 같이 정확히 실천할 줄 알아야 해.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면 온 국민이 우왕좌왕하고 고생이 많지."

어떻게 하면 세속의 사람들도 산중의 스님들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일체 중생이 바라는 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행복과는 반대로 살아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녀. 행복하려면 밝아야 해. 마음도 밝아야 하고, 보고 듣는 것도 밝아져야 혀. 세상에 가능, 불가능은 내 한 생각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평생 동안 본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자기 분야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은 특출한 것이지만 수행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여. 나를 버리면 본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본래 불성을 가진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야.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에서나 중생사이에서 갖가지 시비가 생겨나지 않지.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녀. 단지 자신의 근본자리인 마음이 확실하지 않고 무명과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이지. 마음이 정해지고 노력이 뒤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울 것이 없어. 속가에서도 원(願)을 세워 놓으면 꼭 그대로 되더라고. 비록 늦을 지라도 말이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정하고 머무르지 않고 실천한다면 그 안에 도(道)가 들어있단다.

활안 스님은 새벽 2시면 일어나 도량석을 하고 새벽 6시까지 기도정진을 한다. 안거 때마다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펴고 있으며, 매년 100일 동안 문 밖 출입을 일체 하지 않는 폐관정진(閉關精進)을 계속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활안 스님의 정진수행 일화는 수없이 많다.

요즈음도 100일 동안 폐관정진을 하시는지 궁금하여 여쭈었다.

"나는 100일 같은 건 상관없고, 내 한 철은 숨이 떨어져야 한 철이야. 내 결제는 그런 거야. 모두가 한때거든."

"넌 몇 때를 가지고 있냐?"

"스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한 철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내 뒤만 따라다니면 넌 언제 부처가 될래?"

'스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이 못마땅하신 것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임제 선사의 서슬이 푸른 기상을 천자암의 활안 스님에게서 볼 수 있었다.

"넌 여기를 안 와야 될 건데, 괜히 여기 와서 살아나가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너를 불쌍히 여겨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지어서 한 마디만 묻겠다. 너,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내 마누라 노릇을 해라. 그러면 부처가 될 것 아닌가. 계산이 맞냐 안 맞냐? 계산이 맞냐 안 맞냐?"

생각지도 않은 질문에 당황스러웠고, 어서 답하라고 다그치는데 정신이 아찔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라고 답했다.

"넌 끝도 갓도 없어. 안 맞는다는데 노예가 되어뿌렸어. 넌 언제 부처될래?"

활안 스님은 '넌 언제 부처가 될래?'라는 물음을 두 번이나 던졌다. 활안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기 때문임을 일깨워주었다.

'스님,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원을 이룰 수 있어요?'라고 활안 스님 앞에 수없이 던지는 중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나라는 생각을 버려라. 아(我)가 공(空)해야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지. 나를 버리면 장사를 하든지 도를 닦든지 염불을 하든지 제불성현과 똑같이 밝은 지혜를 열 수 있어."

궂은 날씨 탓인지 저녁이 되자 짙은 안개가 천자암을 감싸고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운다. 풍경소리에는 '오는 이 마다 한 마디씩 일러주건만 진실로 수행하는 자 몇이나 될 것이며, 깨달은 자 몇이나 될런지'이런 물음이 담겨있는 듯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3. 효당 최범술 스님

금봉 최영환은 효당 최범술(曉堂 崔凡述, 1904~1979) 스님의 당호이고 본 이름이다. 스님은 경남 사천사람으로 1915년 곤양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13세로 다솔사에 출가해 이듬해 해인사 지방학림에 들어가 환경 스님께 계를 받았다.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복사해서 배포하다가 붙잡혀 고통을 받았으며, 1922년 일본에 들어가 만 11년 동안 다이쇼(大正)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다가 붓다가야의 달마다라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얻어 범어사에 탑을 세우기도 했다.

1923년 박렬 등과 함께 '불령선인사'를 조직, 일본 천황 암살 계획을 돕기 위해 상해로 폭탄을 운반, 대역사건에 연루되어 8개월간 징역을 살고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930년 김법린 등과 비밀결사 '민당'을 조직,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여학교를 설립, 교장이 되었다. 1934년 사천에 관명학원을 설립하고 1936년 다솔사에 불교전문강원을 만들었다.

1947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불교계 대표로 피임되고, 해인사 주지가 되어 국민대학을 창설했다. 1948년에는 사천·삼천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강원도출신 이종욱 스님과 함께 헌법기초위원이 되기도 했다. 인재불사를 위해 해인중고등학교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 1952년 해인대학을 창설, 이사장 및 학장에 취임했다.

특히, 1960년 다솔사 조실로 원효학당과 다도연구실을 만들어 <반야심경 복원소> <십문화쟁론 복원을 위한 자료집> <한국의 다도> 등을 펴내 한국 다도(茶道)의 중흥조사(中興祖師)가 됐다. 우리는 1960년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반야심경 복원소> 강의를 듣고 탄복한 바 있었으나, <십문화쟁론 복원소> 강의를 마치지 못하고, 1979년 7월 10일 76세로 입적했다. 1969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1986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효당 스님은 인상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독일 사람 비슷하게 생겨 얼핏 보기에는 외국 사람 처럼 느껴졌다. 천재적인 두뇌에 창조적인 머리를 가져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는 8만대장경 <신간장경 누락판 목록>을 작성하고, 한국전쟁 이후 흩어진 장경판을 낱낱이 찾아 정비했다.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니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복지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강조하시며 10여개의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나, 그를 계승해 운영할 사람이 없어 걱정했다. 스님을 따라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었으므로 사찰운영이나 분쟁에 끼어들기를 싫어하고, 오직 자기 공부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항상, "중이 공부를 하여 도를 깨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하셨다. 스님은 또 "한국 사람들은 식량(食量)이 많아 장차 먹는 병에 걸리면 약이 없게 된다. 옛 선인들이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다도가 건강에 약이 될 것이니 차를 도(道)로 알고 마셔야 한다" 하였다.

사실 절에서는 밥 먹고 제 방에 돌아가면 얼굴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식후에 차 한 잔으로 피차의 의사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면 이것이 화합대중의 법약(法藥)이 되는 것이다.

조그마한 키에 노르끄름한 머리를 가져 천재적인 기질이 눈빛에 형형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으며, 오히려 스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는 사람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서양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곳곳에 고아원, 양로원을 만들어 외롭고 쓸쓸한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어찌 불교 공부 하는 사람들이 독선기신(獨善己身: 자기 몸만 이롭게 한다)에 끌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스님의 한탄하였다.

스님 돌아가신 뒤 20년이 못되어 스님의 예언대로 전 세계가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의 다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비로써 효당 스님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님의 마지막 다도 강의가 생각난다.

"초의 스님이 일지암에 계실 때 작은 화로에 차관을 놓고 끓이는데, 바글바글 끓은 소리가 마치 세상이 끓은 소리로 들려 통째 마셔버리니 다도해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시원한 다선일치(茶禪一致)의 삼매담(三昧談)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7>

불평등 공정경쟁 빈부격차 · 실업의 원인

'자유시장경제' 정보력 많이 가진 엘리트계층에 유리한 구조

기독교 권역인 영미문명에는, 산업혁명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진보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경쟁'을 시인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말법(末法)사상이 있고, 역사는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후 500년간은 올바른 불법이 널리 행해지는 정법(正法)의 시대가 계속된다. 다음에 올바른 수행법이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상법(像法)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상법'의 시대가 1000년간 계속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직 남아 있어도 이미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말법'의 시대가 일만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은 아니고 퇴보한다고 생각한다. 영미의 진보개념도 결코 무조건으로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를 위해서는 도덕이 불가결한 것이다. 영국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샬(A. Marshall)이나 케인즈(J. M. Keynes)도 경제에 있어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베블렌(Veblen, T)이 제도적 관점에서 상품과 돈 중심의 현대 경제학에 경고한 바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경쟁을 통한 부의 증대와 그에 따른 인간성의 향상을 확신하여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유경쟁시장을 통한 부(富)의 증대와 인간성 향상은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시대가 바뀌어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경제사회가 붕괴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만세'를 제창했다. 그 소리의 밑바탕에는 당연히 부의 증대와 인간성 향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성 향상에 대한 신봉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공표한 당시의 영국은 바야흐로 산업혁명의 무대에 들어서려는 시대였고 종래의 소규모 상업조직이 근대적 공업제도에 전환하려는 때로서 마침 모직물공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했던 시기였다.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많은 양모가 필요해진다. 그 때문에 지주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책을 만들고 농민들을 강제로 토지로부터 쫓아 냈다.

농촌의 자본주의화(enclosure운동)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쇄도해 이른바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방직기계는 조금이라도 사람 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량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실업한 사람은 기계야말로 그들의 직장을 빼앗아간 악의 장본인이라 여겨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을 벌인 것이다. 자유주의경제학은 당연히 인간성의 향상을 확신한 위에서 성립하고 있었지만, 실제 자유경쟁의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스미스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그렸던 장밋빛 사회는 실업과 빈곤에 의해 좌초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에 '속고 말았다'고 느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8C부터 19C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은 다만 영국만의 산업혁명이 아니고 세계적인 혁명으로 확대되어 갔다. 산업혁명의 결과는 세계의 부를 증가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해(慘害)를 초래했다. 여러 종류의 기계의 발명, 증기력의 과학적 응용은 봉건시대의 산업조직을 급속히 변화시키며 복잡한 공장생산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로서 사회의 빈부 격차는 커졌으며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발달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낳게 했다. 양자의 대립과 알력은 끊임없는 불안과 투쟁을 야기하고 무산계급은 궁지로 내몰려갔다. 그 알력과 불안의 결과로서 '프랑스 혁명'은 발생했지만, 그 성과는 유산계급이 차지하게 되고 무산계급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산계급은 정치 경제 양면에서 심한 압박을 받음과 더불어 곤궁의 도는 더욱 높아갔던 것이다. 여기에 '스미스'이래 경제적 활동의 슬로건이 되었던 '자유방임' 또는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경제조직과 그 사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주류 경제학파의 학자들은 현대의 경제사회조직을 인정하고 '개인책임' 아래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한 것이지만, '자유경쟁'의 결과는 모든 계층을 행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시장경쟁의 결과는 반드시 실업과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고, 불황과 실업, 빈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각국 경제를 끊임없는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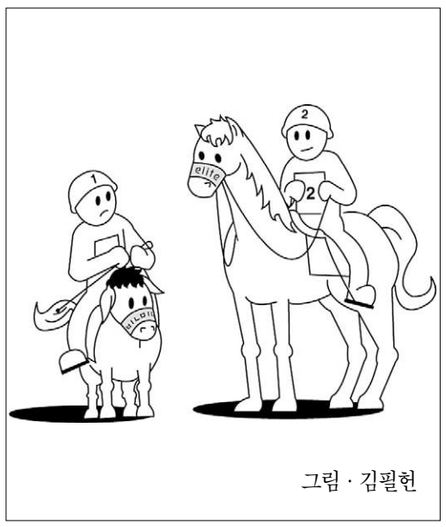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현대국가에서는 실제로 시장메커니즘이나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의 모양새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시장에서 팔고 사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이미 중세와 같은 노예제도는 없어진지 오래이므로 누구나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활동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다. 그런 자유로운 개인의 판단이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해서 사회전체의 가장 적합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은 '경제활동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옷을 입은 훌륭한 시장의 장치가 자동적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지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규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뿌리 깊은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노동의 상품화'와 '자유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실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분명히 노동자는 자유의사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그 결과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시장이라는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차림을 한 자유시장 매커니즘이라는 장치는 많은 경우 엘리트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엘리트쪽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시장거래를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론(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주택을 지으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를 가지지 않은 수많은 저소득층은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서브프라임론이란 속임장치를 개발한 미국 월가의 엘리트들은 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아무리 민주적인 '자유시장경제'라고 해도 정보가 불평등한 이상 공정경쟁을 통한 균등한 소득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⑦ 코칭의 언어학 1 - 경청

허달의 불교와 코칭

<위키피디아 사전>을 참고하면,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추장회의에서 'Talking Stick'이라는 막대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추장회의에 참석한 여러 부족장 중 이 막대를 잡은 사람만이 발언권을 가지며, 막대는 순차적으로 다음 부족장에게 넘겨져서 차례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언제 자르고 들어가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기 의사를 표명할까를 생각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방법은 의사소통에 큰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발언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남의 발언을 듣거나 또는 듣는 척 한다. 그렇지 않고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잣대와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시에, 자신의 자서전 속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험을 꺼내, 이로써 상대방에게 충고하려 하거나, 그 말의 의도를 탐색, 해석, 판단하려는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듣는 이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자서전적(自敍傳的) 반응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듣는 이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나'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감하며 경청하면 상대방 마음열수 있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듣는 이의 이러한 자서전적 반응을 어떻게 느낄까?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 워크숍에서 해보았던 재미난 게임 '휴가계획' 실험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

참여자를 두 명씩 짝을 짓도록 한 뒤에 '가위 바위 보'를 하게 하여 이긴 사람이 먼저 듣는 역할을 맡고, 진 사람이 말하는 역할을 맡는다. 말하는 주제는 '휴가계획'이다. 2분 동안 지어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획을 성실하게 이야기하도록 말하는 이에게 다짐을 받는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태도는 가급적 성의 없이 들으라는 주문이다. 이 게임이 시행되면 휴가 계획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진지한데 반해, 듣는 이는 안경을 벗어 닦거나, 코를 풀던지 딴전을 피워, 결국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야기 하는 분위기는 잦아들고 만다.

게임 법칙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추임새를 넣어가며 열심히 듣는 역할이 듣는 이에게 부여된다. 아쉬움과 탄성, 그러나 비록 처음에는 연출된 경청의 분위기로부터 시작되지만 대화는 곧 화기애애 해져서 휴가계획 이야기는 정해진 2분이 다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실험은 대화의 내용과 질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생한 체험이다.

자서전적 반응에서 듣기를 주도하는 '나'라는 준거틀을 상대방 즉, 말하는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넣는 듣기 방법을 '공감적 반응'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한다. 공감적 반응을 보이면 말하는 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드디어 마음이 열려 숨어 있던 화자(話者)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방법을 일종의 스킬로 보아 연마할 수도 있는데, 상담의(相談醫)들이 활용하는 흉내내기, 동의어로 바꿔 반응하기,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의 흐름을 성찰하고 표현하기, 반응 속에 침묵을 적절히 배치하기 등이 그러한 기법 중 자주 쓰이는 방법으로 코칭에서도 이 상담기술을 활용한다.

코치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을 하도록 훈련 받고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 하는데, 이는 화자의 말과 의도,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은 물론 상대방의 언어 구조에서 발견되는 함의(含意), 자주 쓰는 단어와 그 빈도수, 대화 부분 부분의 에너지 레벨까지 성찰하는, 이른 바 존재(being)에 접촉해 고객과 함께하는 듣기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술들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역시 고객에 대한 깊은 연민(Compassion)이며,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친절(Loving Kindness)이다. 연민이라고 표현하였지만 'Compassion'은 자비심의 영어 표현인데,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자비(Mercy)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Mercy'라는 단어가 우월적 존재가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식 자비심임에 비하여 'Compassion'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연민을 뜻하는 불자의 자비심인 것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좌복 하나도 닳지 못하면 무슨 수좌인가?





그림 · 최문정

천제굴에서 성철 · 법전과 정진
신도들 인법당서 못자게
구들장 파내고 장좌불와
"좌복 하나로 사는 게 수좌야"

혜암은 하안거를 해제한 뒤에도 범어사에 머물며 일타를 가끔 만났다. 24살의 일타는 33살인 자신보다 10여 살 아래였지만 스님이 된 햇수는 비슷했다. 일타가 14세에 어린 나이로 일찍 출가했기 때문이었다.

"혜암스님, 동안거에는 어느 선방으로 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조실 스님께서 창원 성주사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성철 스님을 뵙고 싶기도 하구요. 17살 때 처음으로 선방 안거를 난 송광사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어찌나 말뚝신심이 났던지요. 생식하는 성철 스님께 상추를 뜯어다 드리곤 했지요."

"저도 성철 스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봉암사를 함께 들어간 이후 몇 철을 났지요. 그러고 보니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중답게 생활했던 거 같습니다. 성철스님께선 곧 성주사에서 통영 안정사 뒤 천제굴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저도 동안거는 성철 스님이 계시는 절에서 날 계획입니다."

일타가 혜암에게 은근한 정을 느끼는 이유는 혜암의 은사 인곡 때문이었다. 진주 응석사에 있으면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가 7일 용맹정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곡이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7일기도하는 동안 인곡 스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공양 때를 잊고 기도하고 있으면 스님께서 올라오시어 제 귀를 잡아당기시곤 했습니다. 스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혜암은 새삼 은사 인곡이 생각났다. 지금도 해인사에 머무시는지, 아니면 다른 절에서 계시는지 알지 못했다. 소문만 듣고는 전쟁 중이라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수좌가 안거를 무시하고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은사 스님께서 청담스님이 계시는 고성 문수암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잠깐 들르신 것인지, 아니면 효봉스님이 계시는 통영 미래사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어서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 스님께서는 시봉 잘하려 하지 말고 정진 잘하라고 했습니다. 참선공부 잘하는 것이 참 시봉이라고 저에게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 "집에서 입고 온 옷 밖으로 자란 팔 자르고 가거라"

"혜암 스님, 성주사로 가 성철 스님 모시고 이번 동안거 납시다."

"좋습니다."

혜암과 일타는 범어사에서 한두 달 더 보냈다. 혜암은 산철이었지만 선방에 들어 정진했고, 일타는 운허의 〈능엄경〉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이다. 초겨울이 되어서야 일타가 먼저 창원 성주사로 떠났다.

그러나 일타는 성주사에서 성철과 짧은 기간밖에 살지 못했다. 성철이 몰려드는 마산 신도들을 피해서 천제굴로 옮겨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범어사에서 늦게 출발한 혜암은 천제굴로 바로 가 1952년 한겨울을 성철의 점검을 받으며 보냈다.

천제굴은 안정사 뒤편의 산자락에 성철이 법전 등과 함께 지은 토굴이었다. 성철이 안정사 산내암자인 은봉암에 머물면서 몇몇 젊은 스님들의 울력으로 조그만 초가를 한 채 지었던 것이다.

온갖 자재를 지게에 지고 옮겼으므로 토굴을 짓는데 울력한 스님들의 고생은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산길도 나 있지 않았으므로 지게질도 수월치 않았다. 성철에게 참선공부를 하러 왔다가 일만 시킨다고 슬그머니 도망치는 스님도 있었다. 토굴만 짓는 게 아니라 산자락에 채소밭도 일궈야 했다.

비구니들은 얼씬도 못했다. 비구니들이 자잘한 일을 도우려 해도 성철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다. 성주사에서 10만 배를 하고 성철을 친견한 비구니 혜춘도 천제굴에서 단 하루도 잘 수 없었다. 성철에게 '진짜 중'이 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춘은 밤이 되면 천제굴에서 쫓겨났다.

당시 유일하게 상주하던 비구는 법전이었다. 법전은 봉암사 결사 때부터 성철에게 화두를 받아 정진하던 수좌였다. 법전이 든 화두는 '타사시구자(拖死屍句子)'였다. 직역하자면 '무엇이 네 송장을 끌고 왔는가'였다.

훗날 조계종 11대 종정에 취임하는 법전은 자신의 참선인연을 다음과 술회한 적이 있다.

"나이는 스물넷이지만 참선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 절을 가려면 어린 아이같이 누가 데려다 주어야 갈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은법사(恩法師)가 된 성철은 법전의 단순천진한 성정을 보고 수좌의 기질을 인정했는데, 성철은 평생 동안 수좌들에게 '사람 못된 게 중 되고, 중 못된 게 수좌 된다'고 늘 외쳤던 것이다.

봉암사에 머물며 성철에게 화두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법전은 공양간에서 된장국에 넣을 채소를 탁탁 썰고 있다가 한 경계를 체험했다. 컴컴한 공양간이 갑자기 대명천지처럼 밝아졌던 것이다. 법전은 곧 채소를 썰다 말고 성철을 찾아갔다. 그때 성철은 법전의 지견이 조금 열렸음을 알고 물었다.

"무엇이 니 송장을 끌고 왔는가. 한 마디 일러라."

법전은 대답을 대신해서 오른손 주먹을 번쩍 들어보였다. 그러나 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시 일러라."

이에 법전은 다시 왼손 주먹을 내밀었지만 성철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러보그래이."

"아이고, 아이고."

"또 일러보그래이."

마침내 법전은 꽉 막혀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성철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법전을 문밖으로 밀쳐내더니 마루 앞 세숫대야의 물을 법전의 머리에 퍼부었다. 더 공부하라는 채찍질이었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한 법전이 20대 중반에 성철을 만나 참선공부를 한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인연이었다.

"14세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다가 외가가 가까운 백양사 청류암으로 아버지를 따라가 묵담 스님께 맡겨졌어요. 특별히 출가의 동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사주를 보니 절에 보내지 않으면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여 다니던 서당을 그만두고 절밥을 먹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어린 법전은 부모가 그리워 3개월 만에 행자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장수를 바라는 부모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시 부모의 설득으로 절에 돌아와 하룻밤을 아버지 팔을 베고 잔 것이 속가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3년이 지난 후, 청류암을 찾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말수가 적은 묵담이 말했다.

"집에서 입고 온 옷 밖으로 자란 팔을 자르고 가거라."

옷 밖으로 나온 팔은 절에서 자란 것이니 잘라놓고 집으로 가라는 묵담의 지시였다. 어린 법전은 주춤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갔으나 결국 '팔을 자르고 가라'는 묵담의 지시를 어기지 못했다. 이윽고 어린 법전은 50리 길을 걸어서 영광 불갑사로 가 설제(雪霽)를 은사로, 설호(雪浩)를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법전은 백양사에서 만암(曼庵)에게 비구계를 받고 6.25전쟁이 나기 전에 봉암사로 가 성철을 만난 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간화선에 구법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바 그때 법전의 나이 24세였었다.

천제굴은 기도처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참선만 하는 선방이었다. 마산과 부산 신도들이 찾아오자 성철은 방편으로 삼천배를 시켰다. 삼천배를 해야만 만나 주었다. 신분의 귀천 없이 모든 신도에게 주는 성철식의 화두 불전삼천배(佛前三千拜)였다.

성철은 법전 못지않게 혜암을 신뢰했다. 법전의 장기가 단순천진이라면 혜암은 강직하고 누구보다 원칙에 충실했다. 혜암이 천제굴 인법당에서 정진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하나 생겼다. 어느 날 혜암이 법전에게 말했다.

"토굴에 신도들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고 가게 하지는 맙시다."

"삼천배까지 하고 성철스님을 친견하는데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공부하는 데 장애가 생겨 그렇습니다. 법전스님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들이 창고에서 자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인법당에서 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방을 한 칸 달아낼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전은 참자고 했지만 혜암은 무슨 수를 써 돌파하자고 했다. 일을 처리하는데 서로의 성격 차이가 났다.

"성철 스님께서도 신도들이 자고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신도들 대부분은 왔다가도 돌아가는데 일부 맹렬 신도가 문제입니다."

성철도 혜암 이상으로 단호했다. 신도들이 삼천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신도들끼리 마당에서 잡담을 하거나 소리 내어 웃곤 했다. 심지어는 천제굴을 숙박업소처럼 생각하여 하루 이틀 머물다 가려는 신도까지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안거 결제 하루 전 아침 무렵이었다. 찬바람이 잠시 멎고 아침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법전은 나무하러 산으로 가고 성철과 혜암은 모처럼 마루에 앉아 법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천제굴 창고 앞에 세워진 괭이를 동시에 바라보고는 눈을 맞추었다. 성철이 큰 눈을 더 크게 뜨고는 혜암에게 말했다.

"우리가 인법당을 파버릴까."

"구들장을 들어낸단 말입니까."

"신도가 인법당에서 잘 수 없게 말이야."

"부처님을 모신 방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공부하는 우리가 좋지 뭘 그래. 누울 수 없으니까."

혜암은 곧 일어나서 괭이를 들고 왔다. 그러자 성철이 말했다.

"방 한가운데를 파거래이. 좌복 놓을 자리만 남겨놓고!"

혜암은 한 나절 동안 땀을 흘렸다. 방 한가운데만 파는데도 힘이 들었다. 구들장과 흙을 들어내는데 한 나절이 걸렸던 것이다. 성철은 안정사로 내려가 젊은 스님을 불러와 파낸 흙을 사립문 밖으로 버리게 했다. 성철이 쾌활하게 말했다.

"구들장을 들어냈으니 이제 불을 때지도 못 할거야. 좌복 하나로 사는 것이 수좌이고 참 중이지. 마조대사는 좌복을 일곱 개나 뚫었다고 하지 않은가. 좌복 하나도 닳지 못하고 무슨 수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철과 혜암은 이미 장좌불와를 해온 터라 불편하지 않았다. 구들장을 들어낸 인법당이 오히려 최고의 선방이 되었다. 게다가 불을 때지 않으니 신도들과 객승들이 인법당에 얼씬거리지 못했다. 덕분에 혜암은 얼음장 같은 인법당에서 여법하게 동안거를 났다. 참선의 힘으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건강하게 보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역자 책을 말하다

짧지만 복잡한 역사 총괄 정리

미국불교사 이야기
미주현대불교 · 운주사펴냄 | 3만원

이 책은 학술적 성격과 대중 교양서적 성격을 지닌, 미국 내에서 미국 불교사를 다룬 최초의 본격적인 저서다.

저자 릭 필즈는 1960년대의 격변기 학생운동에 본격 투신하여 불법활동에 연루되면서 하바드 대학교에서 퇴학당한다. 학장으로부터 '서구문명에 위협을 가할 인물(a danger to Western civilization)'로 낙인찍히면서다. 이후 그는 잡지사에서 언론경력을 시작해 편집자로, 주간으로, 때로는 창간자로 활약하다 영성에 눈을 뜬다. 티벳 불교의 초·p 트룽파를 비롯한 티벳 불교 지도자들로부터 사사받아 수행정진하며,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불교잡지와 영성잡지에 기고하는 등 저술활동을 한다. 1969년에 미국인들에게 세계의 기아문제를 제기했던 그는 25년 뒤 미국 뉴욕의 극빈자 거주 지역에서 홈리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다. 암으로 최후를 마치기 직전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제게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따윈 없어요. 사실 제 목숨이 제 질병을 위협하고 있죠. 제 목숨이 방해를 해서 질병이 제자리를 잡기 어렵거든요. 제게는 질병을 위협하는 목숨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그는 철저한 불교적 관점을 견지한 상태로 치열하고 비판적인 미국 지식인의 한 전형적 삶을 살았다. 저자의 삶도 삶이려니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소위 유럽계 미국인 불교도의 치열성과 진지함에 역자로선 자못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티벳 불교의 수행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시각화 수행을 병행하면서, 최소한 10만 번의 절, 보살계 10만 번 암송, 10만 번의 염불, 10만 번의 만다라 봉정, 10만 번의 만트라 암송은 필수 코스다. 티벳 불교를 수행하는 많은 미국의 청년, 장년 불자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본수행도 아닌 이런 예비수행을 착실하게 모두 해내는 모습에서 역자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통해 미국 불교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이 제시된다. 우선, 불교가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곳으로 미국이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각 나라의 불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지 모르는 곳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또한, 각 나라의 다양한 종파의 불교가 미국으로 들어와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으므로 어느 특정 종파 우위의 불교가 확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잘 되면 통불교적 전통이 미국을 거점으로 확립될지 모를 일이다. 이어, 미국불교는 미국 자체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반영으로 재가자 중심의 불교라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새로 일어나는 미국 불교의 혁명적인 방향을 규정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 외에도 미국 불교계에서는 '사마타'라고 불리는 호흡명상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도록 거의 모든 계보에서 권장함으로써 일정 정도 수행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에 쓰인 이 책은 아무래도 그 뒤 미국 불교학자들이 꼼꼼히 학술적 연찬을 통해 확립한 역사적 사실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확성이 더러 보인다.



여러 종파 시행착오 속 정착

미국을 통불교 거점으로 전망

한창호 / 전문번역가

한시와 수행의 내면이 만나다

흥선 스님 '맑은 바람 드는 집', 손글씨도 수록



산중에 사는 스님이 산중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청량한 소식인데, 옛 사람들의 시를 더했다. 옛 사람의 시심과 오늘날 산중에서 정진하는 스님의 이야기가 세월의 더께를 걷어내고 청아한 협연을 하는 셈이다.

직지사성보박물관의 관장 흥선 스님이 내 놓은 <맑은 바람 드는 집>은 시심과 불심과 정갈한 손 글씨가 기연(機緣)을 펼쳐 보인다. 옛 시들은 중국의 문인 학자에서 우리나라의 문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려냈다. 그 넓은 조망권에서 뽑아 올린 시들을 계절별로 나누어 스님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사유한 글들과 배대 시켰다. 운치 있는 종이에 스님이 직접 쓴 글씨들 또한 책 읽는 맛을 더해준다. 책의 제목은 직지사성보박물관이 '청풍료(淸風寮)'였던 데서 따 온 것이다.

금석학에 깊은 조예를 지닌 흥선 스님이 번역한 한시들은 투명하고 간결하다. 한시에 대한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풍경을 읊은 시는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이고, 심경을 노래한 시는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시의 분위기와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배대 된 산문들도 청징하긴 마찬가지다.

산사에서 보는 자연들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의 눈길로 관찰하고 있다. 스님의 글은 계절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풍경에서 느끼는 구도자의 심경이 때로는 매끈매끈하게 때로는 질박하게 그려져 있다.

스님은 시를 고르는데 있어 이미 많이 알려진 시는 제외 했다. 또 지나치게 사변이 어렵고 복합의미를 지녀 난해한 작품들도 배제했다. 아름다운인연 펴냄 | 1만 3500원

임연태 기자



흥선 스님

내가 받는 것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라

법정 스님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과경>에는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받는 것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전생과 내생은 지금에 달려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도 가능하고 유효한 이야기다.

전생이야기가 하나의 경전을 이루는 것도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연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고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인연 이야기
법정 지음
문학의 숲 펴냄
1만1500원

인간적인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 역편
민족사 펴냄
9000원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은 매우 싱싱하다. 부처님의 육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들은 간결하면서도 다정하다.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을 펴낸 바 있는 역자가 쓰임새별로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을 골라 묶었다.

역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부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으며 불자로 살기가 정말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1편은 예불 예경 의식 기도 독경을 위한경전 모음으로 제2편은 공덕 짓기와 간병 보시 효도 등 이타행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모았다. 제3편에서는 늙음과 병듦 슬픔과 한탄 등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를 만날 수 있으며 제4편에서는 친구 우정 등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느리게 살면 더 많은 걸 본다

우리 시대의 젊은 서정시인으로 통하는 문태준 시인의 첫 산문집이다. 제목에서 주는 느낌 그대로 시인은 느린 삶의 지혜를 소곤소곤 전하고 있다. 시인 자신이 관찰하고 느끼고 마음에 새겨 넣은 작고 느린 것의 아름다움을 시를 쓰듯 편지를 쓰듯 그렇게 전하고 있다.

급박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

느리게 사는 것이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병증을 보완해 준다는 것이 시인의 견해다. 빨리 걸으면 길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없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는 만큼 많은 것이 보인다. 시인이 집에서 직장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느림의 미학들을 공유해 보자.



느림보 마음
문태준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2000원

'불출협' 새 회장 지홍 스님

"108권 불서읽기 운동 전개"



"불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11년간 수고하신 전임회장 원택 스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것을 상의하며 협회와 불교출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16일 불교출판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단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통해 협력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출판문화상에 '독자상'을 신설해 독서인구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전국의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들로부터 독서운동을 전개하거나 법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등을 추천 받아 시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불서읽기 캠페인을 전개해 '1인 108권 독서하기 및 1가정 108권 장서하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님은 "가정에서 책읽기 문화가 정착될 때 독서인구의 증가와 출판 시장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협회는 종단과 교계 언론사 등을 연계해 불서읽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립학교와 파라미타, 불자교사단체들과 연대해 청소년 독서인구 확대를 견인하고 사찰도서관 설립 운동도 보다 폭넓게 전개하겠다는 것이 지홍 스님의 각오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4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8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9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10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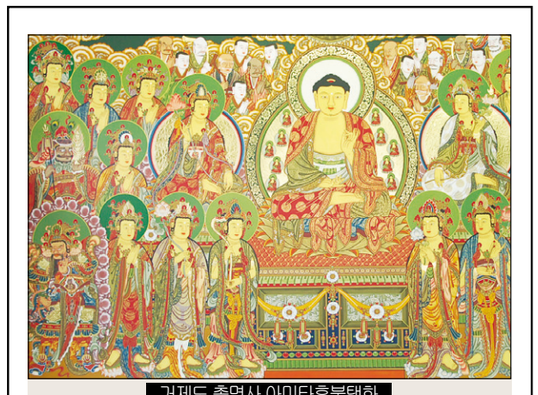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여의불상
만사형통의 효력이 있는 여의불상을 귀하신 몇 분에게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상하 : 9cm
· 좌우 : 5cm
· 앞뒤 : 4.5cm
여의불상을 모시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만사형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의주
여의주란 글자 그대로 마음먹은 뜻과 같이 되어지는 구슬로서, 전통적인 비법으로 여러 광물질을 수년간의 숙성과 특수공정 과정을 거쳐 만든 신비의 영물입니다.
영적 장애 상담 환영
02)924-3500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약사여래불 탱화 대신 봉안하길…"

원로서예가 이성조 거사, 남화사에 60폭 화엄경 병풍 법보시

원로서예가 남석(南石) 이성조(72) 거사가 구미 남화사(주지 성화)에 60폭 짜리 대형 병풍을 법보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이를 기념해 구미 남화사는 7월 15일 '화엄경 병풍 봉안대법회'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 거사의 '보광명전' 현판을 비롯해 석계 김태균씨의 '안심요' 현판, 심천 한영구씨의 '법화당' 현판, 일정 이창수씨의 '남화사' 현판을 혜각 이주강씨의 서각으로 제작한 현판식도 함께 가졌다.

이번에 이성조 거사가 보시한 병풍은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菩薩行願品)' 5492자를 써넣은 가로 27.3m, 세로 2.3m 크기로 갑골문자나 죽간 등에서 볼 수 있는 고문자인 금석문(金石文)으로 쓰여졌다. 병풍은 20여 년 전 청와대가 이 거사에 의뢰해 3년에 걸쳐 제작한 뒤 그가 소장해 오던 작품으로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수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거사는 남화사가 보유한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지난해 11월 경북도 문화재(제544호)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병풍을 기증하게 됐다. 이 거사는 "우연히 남화사에 들렀다가 신라시대 후반에 조성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보고 불자로서 큰 감화를 받았다"며 "하지만 뒤에 탱화 하나 없는 불상이 허전해 보여 이를 기증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조 거사와 그의 작품 '퇴계 선생 성학십도' 12폭 병풍.

이 거사는 지금까지 '화엄경 보현행원품'으로 여러 차례 병풍을 제작했으며 해인사 백련암, 미국 뉴욕 원각사, 부산 옥천사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이 거사는 또 글자수 7만자, 길이 120m의 168폭 법화경 병풍을 완성(2007년 고희 기념전)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어 270자 반야심경을 사경, 5년간 20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3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이 거사는 18세 때 오제봉 선생을 사사, 서예계에 입문했다. 부산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하고 1959년 제8회 국전에 최연소로 입선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작가(1985년)로 선정됐으며 대구시 문화상(1991년)등을 수상했다. 특히 1981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전(LA)에서 한국예술계를 대표하는 1인으로 초대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모 최문정씨 서양화로 국전 '입상'

"전통불화의 창조적 계승 · 불교 미학 담은 서양화 하고파"


7월 10~18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미술대전 봄전시회에 참석한 최문정 불화가와 그의 작품 '남심'.

단청 및 탱화를 그리는 지운 최문정(40) 불화가가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국전)에서 서양화로 입상해 화제다.

10여 년간 故 만봉 스님을 사사한 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문정 불화가는 7월 8일 불화가 아닌 '남심(南心)'이란 비구상화로 국전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불화와 한국화, 서양화의 기법과 혼합재료가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남심'은 강진 남미륵사의 관음전 단청작업을 하면서 느낀 환희심과 남해의 아름다움, 따뜻한 인정에 매료되어 형상화된 작품이다.

최문정 불화가는 "탱화와 단청은 물론 한국화, 벽화 등을 그리며 배운 기법과 정신상태를 현대미술의 비구상화를 통해 표출한 것이 국전의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불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더불어 불교적인 사상과 미학을 담은 서양화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초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중인 혜암 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정찬주 소설 '가야산 정진불'의 삽화를 그리고 있는 최문정 불화가는 현재 강진 남미륵사의 관음전과 만불전 단청작업에 비지땀을 쏟고 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CRO 과정을 이수한 최문정 불화가는 경주 골굴사와 보신각 종각, 수안보 흥천사, 보라매 공군법당 등 50여 곳의 단청과 경주 불국사 무설전 지장탱화, 서울 조심사 104위 신중탱화 등을 그리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송민 이주형 서예전

'운주사 와불님' 등 전시



'송민(松民) 이주형(李周炯) 서예전'이 7월 16~22일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열렸다.

경기대 이주형 대우교수(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과 서화전공 · 사진)는 이번 서예전에서 '공허(空虛)'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버리고 비우는 것은' 등 65점의 한글 및 한문 서예작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한국서예비평학회장)는 "사사로운 마음을 비우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든 사람은 겸손하다"며 "송민의 서예가 기세 당당하고 자체(字體)가 의연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있고, 전통과 시대를 아우르되 그 참신성을 잃지 않는 까닭은 송민의 미학적 원형 사유로서의 '겸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했다.

김성우 기자

아카데미 선그림 단청 특별강좌

어린이 미술체험 특강도…


박경귀 선불화공방 원장(사진 오른쪽)이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통불교미술 교육단체인 '아카데미 禪그림'이 오는 10월에 있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단청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 하고자하는 이를 위해 단청특별강좌를 개설한다.

7월 24일부터 3주간 서울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체계적인 단청이론과 실기를 교육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 선그림'은 7월 31일부터 2박3일간 길상사 어린이 여름수련회에 미술과 놀이형식을 결합한 어린이 미술체험프로그램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박경귀 선불화공방 원장(문화재수리기술자 443호)은 "아카데미선그림은 앞으로 사찰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 전문적인 미술체험프로그램 개발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을 흡수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2) 732-0732

김성우 기자

"깨달음향기 대중에 전달되길"

정여 스님 서화전 대구서 열려

선수행과 종무행정, 두 분야에서 이사무애(理事無碍)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선서화(禪書畵)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7월 15일 오후 2시 옥불보전 6층 갤러리에서 '정여 스님 서화전'을 연다. 8월 14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서화전에서는 서화 16작품이 공개돼 선수행의 묘미와 멋을 간접적이나마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여 스님은 "여여(如如)란 부처님 마음처럼 때 묻거나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며 "언제나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게 하는 마음자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포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관음사 갤러리가 문화를 통한 포교공간은 물론 미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깨달음의 향기가 대중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여 스님은 1974년 범어사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여여선원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총무원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053)474-8228

김성우 기자

대한명인전 개막

22일 대한명인 추대식도

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회장 이준호)는 7월 22일 오후 2시 40분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2009 대한민국 대한명인전' 개막식과 '제9차 대한명인 추대식'을 개최한다.

'살아있는 혼 민족을 깨우다' 주제로 7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벽화, 탱화, 황칠공예, 지호공예, 청자, 조소, 현판서각 등 59개 분야의 전시와 함께 국악현악기, 분청사기, 금속상감 등 12개 분야별 강의 및 시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명인전에 처음으로 신설된 탱화분야에 사향 김진구씨가 명인으로 추대돼 '수월관음도'와 '자비선사 법진 스님 진영'을 전시한다. 김진구씨와 더불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던 가수 서유석씨, 수묵화 분야의 일당 문형은씨, 전통난모분야의 유홍숙씨, 현판서각분야의 진산 정지완씨 등 총 29명의 문화예술인이 대한명인에 새롭게 추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명인은 공예 분야 79명, 국악 분야 46명, 음식 분야 49명, 인문 분야 27명, 총 201명이 됐다.

한편, 전통목탁분야의 보운 김덕주씨, 사찰벽화분야의 김기태씨도 참가해 작품을 선보인다. (063)652-8820

김성우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직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6 밥은 그리움

'마음 연구가' 들과 함께한 장보기

불교의 과학적 체계와 자비의 가르침을 서구사회에 설파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망명정부를 이끈 지 올해로 50년째다. 20대에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올해로 일흔 네 번째 생일을 맞았다. 티베트의 자유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티베트의 스님들은, 그들의 큰 스승임과 동시에 티베트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머나먼 타지에서 맞게 되었다.

일산 여래사에 기거하고 있는 남카 스님의 방에도 여러 티베트 스님들이 모였다. 옆방에 있는 웬덴 스님을 비롯해 인천 절에 살고 있는 진바 스님도 오랜만에 방문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난 세 스님이 회포를 풀기가 무섭게 어딘가를 부지런히 나선다.

"스님들, 어디 가세요?"

우연히 길을 앞서가던 내게 "우리, 보살님 따라 갑니다"라고 농을 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한여름의 햇살보다도 밝다. 스님들은 이내 "우리들, 내일 달라이 라마님 생신이라 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생신상에 차릴 과일 사려고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이것이 웬 횡재이랴. 나의 발걸음은 순간 중한 선약조차 잊고 스님들의 뒤를 졸졸 따른다.

일산의 한 마트에 도착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과일코너. 우선 수박이 무더기로 쌓인 앞에 걸음을 멈춰선 세 스님. 당최 어느 놈이 잘 익었는지를 알 수 없어, 이 수박 저 수박을 그저 어루만져볼 뿐이다. 옆에서 거들어볼 요량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수박을 톡톡 두들겨 '통통' 소리가 잘 나는 걸 사요"라고 참견하니, 스님들의 얼굴이 시범을 한번 보여 보라는 표정이다. 아뿔싸, 결국 점원의 장담어린 도움에 큼지막한 수박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옆 코너에도 들러 굵직하고 잘 생긴 참외와 토마토를 골라 카트에 넣고, 사과, 바나나 등도 차례로 담는다. 그런데 배 코너에서 한참을 멈춰선 진바 스님, 이 배 저 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더니 남카 스님과 무언가를 논의한 끝에 신중하게 한 봉지를 골라잡는다.

"한국 배는 크고 예뻐요.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인도에도 배 있어요. 하지만 한국보다 작고, 맛도 별로예요. 그런데 단단한 배를 사야 맛있는데 배가 다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튼튼하지 않고…"

한국산 배에 칭찬을 아끼지 않던 진바 스님의 입안에는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지 입맛을 쩝쩝 다신다. 한편 한쪽에서 두 스님이 과일 고르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웬덴 스님의 마음은 순간순간 어딘가로 머물러 수심이 떠나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은 티베트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다. 중국의 통치 하에 자유가 억압된 티베트에서는 제대로 불교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스님들과 많은 티베트인들이 다람살라로 망명하기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망명한 후에도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은 마음의 병이 돼 한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웬덴 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 (7월 6일)을 앞두고 생일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는 웬덴 · 진바 · 남카 스님 (왼쪽부터)

"어머니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 수년 전 어렵게 방법을 찾아 티베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드리려고 달라이 라마 사진 갖고 갔다가 중국 공안들한테 잡혀 빼앗기고 9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당시의 고통과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한 순간도 떼놓을 수없는 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후일 한국과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도와 통역을 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해 게으를 새가 없으니, 그 마음 또한 애써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묵직했던 마음을 잠시 털어놓은 웬덴 스님, "그런데 인도는 과일이 한국보다 종류가 더 많고 달아요. 또 값도 싸서 이 바나나 인도에선 두 무더기에 20루피밖에 안해요"라며 평상심을 찾아본다. 초와 인도차를 구하느라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두 스님이 돌아와 장보기를 마치고 마트를 나서니, 어느덧 날은 어둑어둑해져 선선해졌다. 묵직한 과일보따리를 들고 돌아가는 길, 천진불과도 같은 스님들 덕에 마음에 차곡차곡 쟁여두었던 세파를 잠시 내려놓는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2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어떻게 하면 人生이 술술 풀릴까요? 3

세 번째, 타고난 팔자가 좋아야 한다.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는다. 즉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될 수 없으며, 내 마음대로 우리 엄마 아빠, 형제 등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 치우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인생행로는 얼마든지 나의 마인드와 관점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1.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은 바른 지혜를 생산해 낸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지혜가 바로 생겨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일을 벌이지도 않고 자신의 적성과 본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생기게 된다. 즉 나의 어떤 한 생각이 나의 인생역할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되지도 않은 생각들로 꽉 찬 사람들은 바른 지혜가 생길 리 만무하다. 어둡고 탁한 마인드에서 무슨 현명함이 나오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엉뚱한 아이디어와 이상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되고 그로인해 더더욱 괴로워지고 허황됨을 도모하며 결국은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은 만복(萬福)을 불러들이는 기본 터전이라 할 수 있다.

2. 귀티와 부티는 다르다는 것을 직시하면 대접받는 삶을 산다.

귀티 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다. 요새는 성형수술도 귀족 수술이란 것이 있어 더 귀티나 보이는 것을 선호하며 그렇게들 되려고 다들 안달이다. 이렇게 귀티 나는 사람을 선호하는 세상이다 보니 반대로 빈티가 나면 어디를 가도 무시당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티와 빈티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일단 귀티와 빈티의 차이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명품을 걸치고 갖고의 차이가 아니다. 귀한 사람은 부티 나 보이지만 부티가 난다고 해서 꼭 귀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귀티는 그 사람의 습성과 마인드 언행 등이 모두 고루 배합되어서 나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이다. 이 아우라는 물질로만 감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씀씀이를 갖느냐에 따라서 향기처럼 배어 나오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아우라를 지녀 어디를 가도 귀한 사람으로 대접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더욱 몇 배로 노력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대접 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

3. 돈을 잘 쓰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돈은 반드시 돌고 돌게 되어 있다. 돈이란 것은 쌓아 놓고 움켜쥐고만 있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단 돈이 절로 따르도록 하려면 베푼 만큼 들어오는 법칙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사는 학생에게 맛있는 저녁밥과 함께 책 사보라고 용돈을 주었다고 치자. 그 돈은 너무나 유익하고 요긴하게 쓰였으며 상대에게 뿌듯한 기쁨을 선사했다.

이러한 기쁨은 발이 달려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게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과 같다.

반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도 찝찝하고 욕만 얻어 먹는 경우도 있다. 유익하고 요긴한데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02)576-7575



모든 손님들이 만행화의 '고마운 선생님'

40~50년 전에는 신발하나도 참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무신 한 짝도 귀할 때인데 수제화는 일반인이 감히 구경도 못하는 최고급 신발이었죠.

그 시절에는 수제화 기술을 전수 받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늘처럼 높은 선생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자인 담당을 '교장 선생님', 미싱과 봉제 담당을 '카피 선생님,' 전체적인 바닥부분의 관련 마무리 담당을 '바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만큼 신발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수제화 작업은 세 명의 기술자들이 크게 재단, 미싱, 봉제, 바닥 공정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카피 선생님이 미싱 작업을, 바닥 선생님이 바닥 작업을 끝으로 모든 제조 과정은 끝이 납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특히 제조 공정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공장으로 직접 신발을 사러왔습니다.

"신발이 고무신 코모양 같아 승복과 일반 불자들의 법복에는 어울려도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에게 보기에도 예쁘고 신기에도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중적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선 용두동에 있던 작업실을 종로로 옮겼습니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신발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저도 신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함이었습니다.

특히 종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히 설명하고 작업과정도 보여주다 보니 서서히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신발모양이 고무신 같아 조금 낡아 보인다' '통풍이 잘 됐으면 좋겠다' 등등. 지금 돌이켜 보면 만행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준 정말 고마운 진짜 '선생님'들이죠. 이런 진짜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를 상징할 좋은 신발 '만행화'를 만들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에게 초심으로 늘 노력 하는 제작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02)733-571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법성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담아 보급합니다
황토 전통메주, 죽염장, 죽염된장, 매실 고추장, 국내산 대두콩 100%
새마을금고 : 2918-09-002988-0
예금주 : 조정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 2구 80-1 법성사
전화061)867-2331
010-8643-668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 일이 잘 안되는 분.
- 조상천도가 잘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빙의퇴마, 신병, 정신질환, 환청, 신내림 천도.
- 알콜중독, 우울증, 두통, 노안치매 등 모든 질병.

*특별한 우주氣 신통력으로 건강과 행운을 드립니다.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보살구함
051)334-3009
011-840-4355
010-8818-310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년고찰 / 경북지역)
011-527-0637

조계종 소백산 산자수려한 정진도량에 평생 운영 관리를 계승할 비구니 40-50대 건당 제자 속히 두고자 하며, 그리고 불심있고 자가기도 하며 후원을 관리할 40-50대 공양주와 관리운영을 도울 출가할보살님 구함.
공양주 보시금은 답사 후 결정함.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윤5월 묘, 탈봉, 이장 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 스님 직접 전국 회향 천도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 숙성된 봉삼주 필요하신 분 상담

010-2553-8827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어렵습니다 스님이 안 계시는 산사 암자, 무보시로 인연 기다립니다
010-8367-3060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괴산 천년고찰 기도도량)
010-6414-5600

탈 종 공 고

법 명 : 청강(직책:선원장)
사찰명 : 미륵암
주 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한국미륵불교 총무원장 법하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 (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임상 5년에 비전으로 납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출장 치료 가능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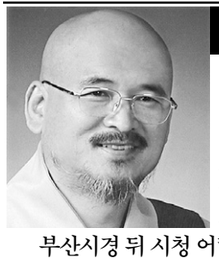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사육임산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명당 탐지기



TM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폐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탈 종 공 고

- 법 명 : 김홍찬 (대공)
- 주 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기리 926-1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법 명 : 임경섭(고산)
- 승려증 번호 : 081-062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연화사
- 법 명 : 황정민(동암)
- 승려증 번호 : 011-46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2리 산 58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수도권
- 부지 : 1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급양도가 : 13억5천

- 위치 : 대가람터
- 대지 : 50,000평
- 산속,도로완
- 산세수려
- 가격협의

- 위치 : 강원도
- 대지 :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3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안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경남
- 법당 : 5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2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 + 10평+ 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 위치: 양산 시내
- 대지 총평수: 520평
- 법당(와가) 25평, 요사채 (2동) 50평
- 도량주변 산세, 풍광 최고
-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가액 : 7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 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7천 5백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
- 대지 130평 지하 1층
- 지상 4층
- 임대수입과함께안정된 사찰
- 전용주차장 有
- 가액: 18억

010-6811-33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 포함) 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 가능 약쑥, 뜸방, 벌침교육실 (스님이나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이 직접 관리 지도해줌)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 60만원

010-6592-0808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 태백산 자락 문수봉쪽
- 임야 1만 3천여평
- 토지: 955평, 산, 토지, 임야 연결
- 가액: 토지 평당 20만원 임야 평당 1만5천원 공기좋은 맑은 곳에 위치

010-6224-3565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1층 단동2동,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자연녹지 281평(허가됨)
- 하천부지 약 300평~350평
- 무료 사용부지 약 300평 하천 위에 법당(스래트) 약 40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람
- 부산 지하철 2분거리

010-6326-8870
010-9613-5567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완벽한 시설
-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안내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시설비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 10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벽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작은토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 평수: 대지 110평 (건평 30평)

033)434-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5,5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3,500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사찰부지안내

- 임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
- 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에서 25~30분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174-8904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532-7433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귀포시 중앙시장 밀집상가 700개
- 평수: 60평(2층)
- 삼존불 및 시설완비
- 가액: 7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 급 양도

010-9597-247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 평
- 대지: 205평
- 건물: 56평(1층33평, 2층23평
- 황토방有, 6月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
- 가액 : 3억 9천 8백만원

010-6438-356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신천역 바로 앞
- 4층건물 중 3층(약 50평)
- 시설: 법당, 방3, 공양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807-71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850-1208

포교당안내

- 위치 : 강화군 내가면 바다 보이는 황청 포구 산밑
- 법당, 삼존불, 금사경호불, 신중 · 산신탱화, 방3, 거실, 화장실겸 욕실, 마당 넓은 텃밭
- 가액: 보증금 5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5719-686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청정지역
- 평수: 총 340평
- 법당,1, 방2, 요사채, 주방1, 방2, 창고
- 산신각, 심야전기온수보일러, 텃밭
- 가액: 전세 2000만원 시설비 없음

010-7157-06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 부근
- 2층 건물 약 40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37만원 시설비 500만원

042)825-30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43평, 법당: 10평
- 요사채: 15평
- 지방도로 옆에 위치
- 가액: 4천만원

010-3805-3527

사찰부지(암자터)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평수: 1500평, 2300평 (평당 12~22만원)
- 특징: 조용하고, 경관수려, 양평역, 용문역 금년 11월 전철개통예정

011-9472-6780
(주인직)

암자터 · 토굴안내

- 위치 : 산 좋고 물 맑은 공주시 정안면 무성산 상류계곡
- 옹달샘 입구 365일 물이 흐르고 있음
- 평수: 약 8000평
- 건물: 40평, 25평 2동
- 가액: 9억
- 전세: 5000만원~8000만원사이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343-671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8653-321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 종교부지300평, 대지150평, 임야184평
- 주차장 넓고 교통사통 발달 기혈이 흐르는 명당터
- 뒷산 등산로. 대나무, 소나무
- 신축3년, 법당15평, 요사채 30평, 부속건물2동
- 가액: 3억 8천만원

010-4802-3836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2동 큰도로변 지하철 암사역 3분거리
- 평수 35평, 옥상 35평 약 70평
- 법당, 공양간, 방3
- 가액: 전세: 800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3714-3635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콩만한사찰안내합니다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2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의령에서 대구가는 국도(20번)변에 있습니다

011-9329-4241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

010-3834-8545
010-6739-64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 50m 시내버스 정류장 교통요지)
- 4층 건물중 4층(옥상사용 가능)
- 삼존불, 지장호신불 용왕당등 시설 최상급
- 방4, 욕실2,옥상창고,심야전기보일러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꼭하실분만 연락)

010-6564-8088
070-7776-308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땅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대지238평, 전538평)
- 건물: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 진입
- 함창읍에서 2분~3분거리, 접촌에서 5분
- 가액: 1억2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2동 (100평 30평) 창고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불교적 인재’ 표상은 고요 · 화평 · 보시하는 사람

강 사 : 조용헌(원광대 동양학과 초빙교수)
일 시 : 2009년 7월 14일
주 제 : 사회적 인재와 불교적 인재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주 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원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지를 걱정하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공자 〈논어〉 ‘이인(里仁)편’에 나오는 명구이다.

사람은 자신이 설 수 있는 근본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사람이 진정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면 언젠가는 황금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황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가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그중 영향력 있는 인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몇 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인재불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불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인지 조용헌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력

1961 전남 순천 生.
원광대 불교대학원 불교민속학 박사.
원광대 동양대학원 동양학과 초빙교수.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 칼럼 연재.

#행복하려면 고요해야

현대사회는 삶의 수단이 모두 스피드(speed)인 것 같습니다. 대포나 비행기, 자동차, 통신 모두 속도경쟁입니다. 서양문명이 우리를 제압한 원인도 스피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없던 심장병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신문사 원고마감에 시달리느라 심장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 고민했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행복하려면 고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요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고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 대통령도 그렇지 못한 것 같고 前 대통령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화평하고 베풀 줄 알아야

불교적 인재는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요하려면 삶에 우선순위를 정해 천천히 가거나 많은 부분에 대해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배양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고 중심이 잡히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고요해서 행복해진 모델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인재가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고 지위가 있는 분들을 보면 눈매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부자이지만 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중에서 ‘안시(眼施)’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온화한 눈길에 따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는 뜻처럼 눈이 화평한 사람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화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요즘은 그런 이를 찾아보기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차 마시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불교적인 인재라면 그런 자연을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란 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자연 그 자체가 사람한테 큰 위안을 주는 것이죠. 요즘 사회생활은 전부 긴장의 연속입니다. 현대인들이 환갑이 되어서 병 안 걸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겼을 때 치유해 주는 것은 자연과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악기소리가 깊은 슬픔까지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찰에는 자연과 인간의 육성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차를 마시면 고요함과 온화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제대로 마신다는 것은 뱃속에 무언가를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차를 마시면 사람 몸에 기운이 도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 다도는 단순합니다. 물을 따르고, 끓이고,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찻잔을 만져보는 그 자체가 법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 없이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복잡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까지 살필 풍수도 알아야

불교 인재라면 풍수도 공부해야 합니다. 바람과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자신의 컨디션이나 영적인 깨달음까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기운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술사들이 묘자리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영성을 위한 풍수 말입니다.

옛 조사스님들께서 암자 터를 잡은 것을 보면 대단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목이 아주 예술입니다. 터가 지닌 미묘한 조합을 보면 평균 30년은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축적된 전통의 힘이 있습니다. 발효된 데서 깊이가 나오고 성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소식 한 분’과는 밥 먹고 농담하는 것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축적된 전통에서 나오는 그윽한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풍수와 영적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아파트에서 도인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보일러 방에서 자는 건 문제입니다. 잠에 깊이 들어 몸의 기운이 돌아야 하는데 등 밑에서 보일러 물이 돌고 있으니 자연적인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아랫목 구들장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안온함이 남아 있는 곳이 전통 사찰들입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서양인들은 자연의 기감을 감지하는 능력이 퇴화됐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색계를 추구하는 문명입니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미신으로 여기고 말입니다. 또 의자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심장병이 생깁니다. 인간의 몸을 보면 정신을 알 수 있는데 비만인구가 많은 서양인을 보면 고상한 생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불교적 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얻는 맛을 느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돈 되는 것만 가치를 두지 명상 등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부엉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집중해야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내면에 있는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고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축구, 골프 등은 대단히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명문가에 가보면 기운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현관의 신발만 보고도 영적인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열강하는 조용헌 교수.

긴장 내려놓고 차 한 잔의 여유 찾으면 온화해져
지혜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 차분하게 집중해야


사회적 인재와 불교적 인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인재불사를 발원하는 불자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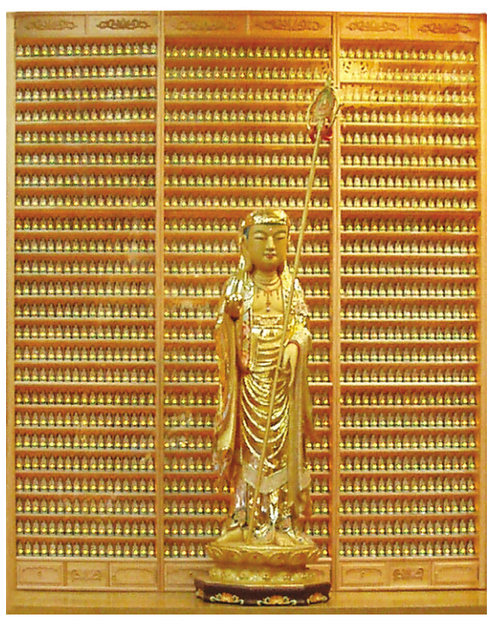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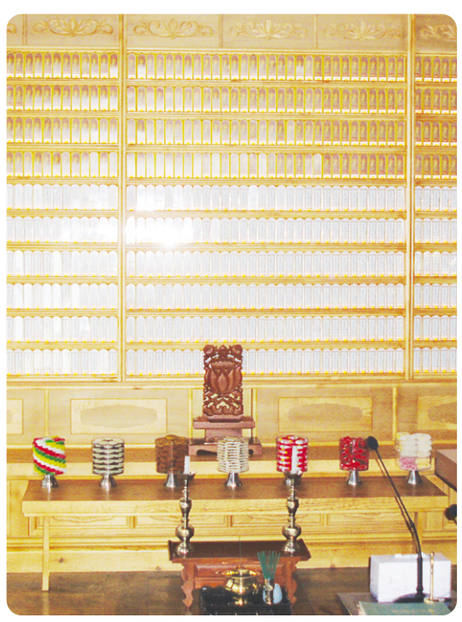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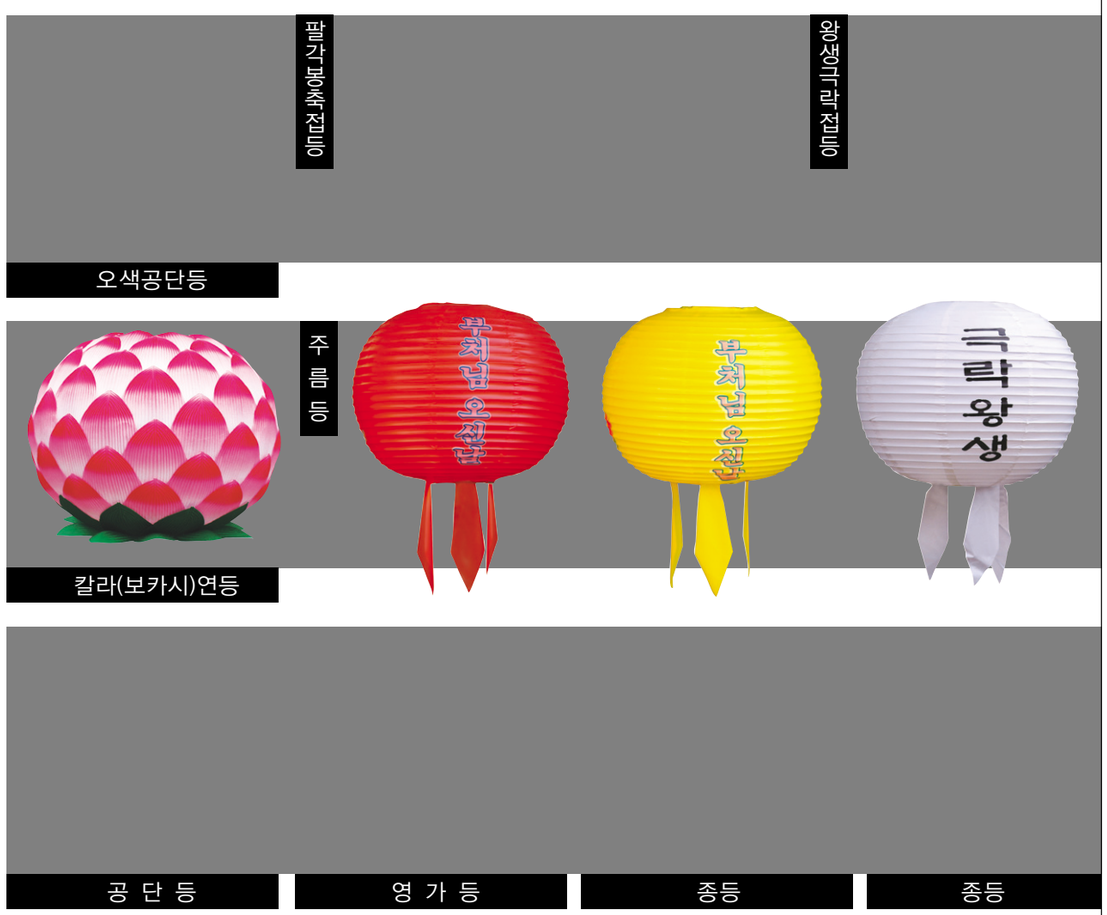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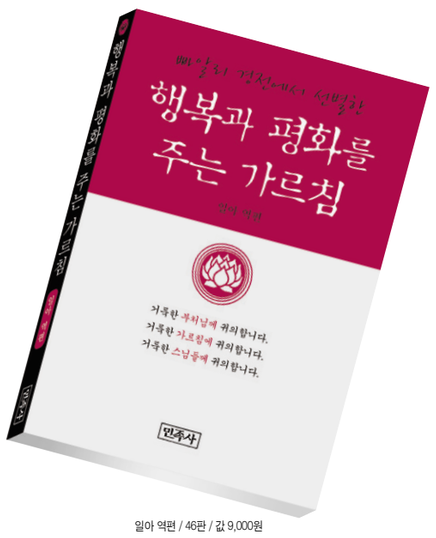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듬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훤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



뒷발자취를 생각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사세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부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켰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 꺼지고 불 하나만 남아 있더랍니다. 그 뜻은, 간략하게 얘기하겠는데 가죽 속에다 불을 켠 것은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은 아마 천둥 번개가 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만좌중에 한 사람만이 그런 불이 있었답니다. 그러듯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자리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참 감사의 표시를 말로 어떻게 다하리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너무나 깊고 찬란해서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한 철입니다. 한 철 동안에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생에 또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껑충껑충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화 문명이 발전이 돼서 안방에 앉아서도 텔레비전으로 세계를 볼 수 있고 뭐든지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두를 안다 해도 도가 아니니라." 이러셨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물 한 모금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보나마나가 되는 거니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물을 먹을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실천이 되며 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모두 직결이 돼 있지만 일거수일투족 똑같이 고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일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칠성부처니 지장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주해신이니 주산신이니 이런 이름을 아주 그냥 알맞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심(一心)으로, (가슴을 가리키시며) 그 주처에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고, 중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고, 하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다는 소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과거 일심, 미래 일심, 현재 일심 이 삼심(三心)이 바로 일심이 돼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렇듯이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아프다는 거, 고가 많다는 거, 즐겁다는 거, 산에서 일이 벌어진 거, 물에서 일이 벌어진 거, 명이 짧아서 일이 벌어진 거며 모든 면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분야가 한군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용건에 대해서든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보살이 나가서 나투면서 응신이 돼서 바로 대비책을 세워서 나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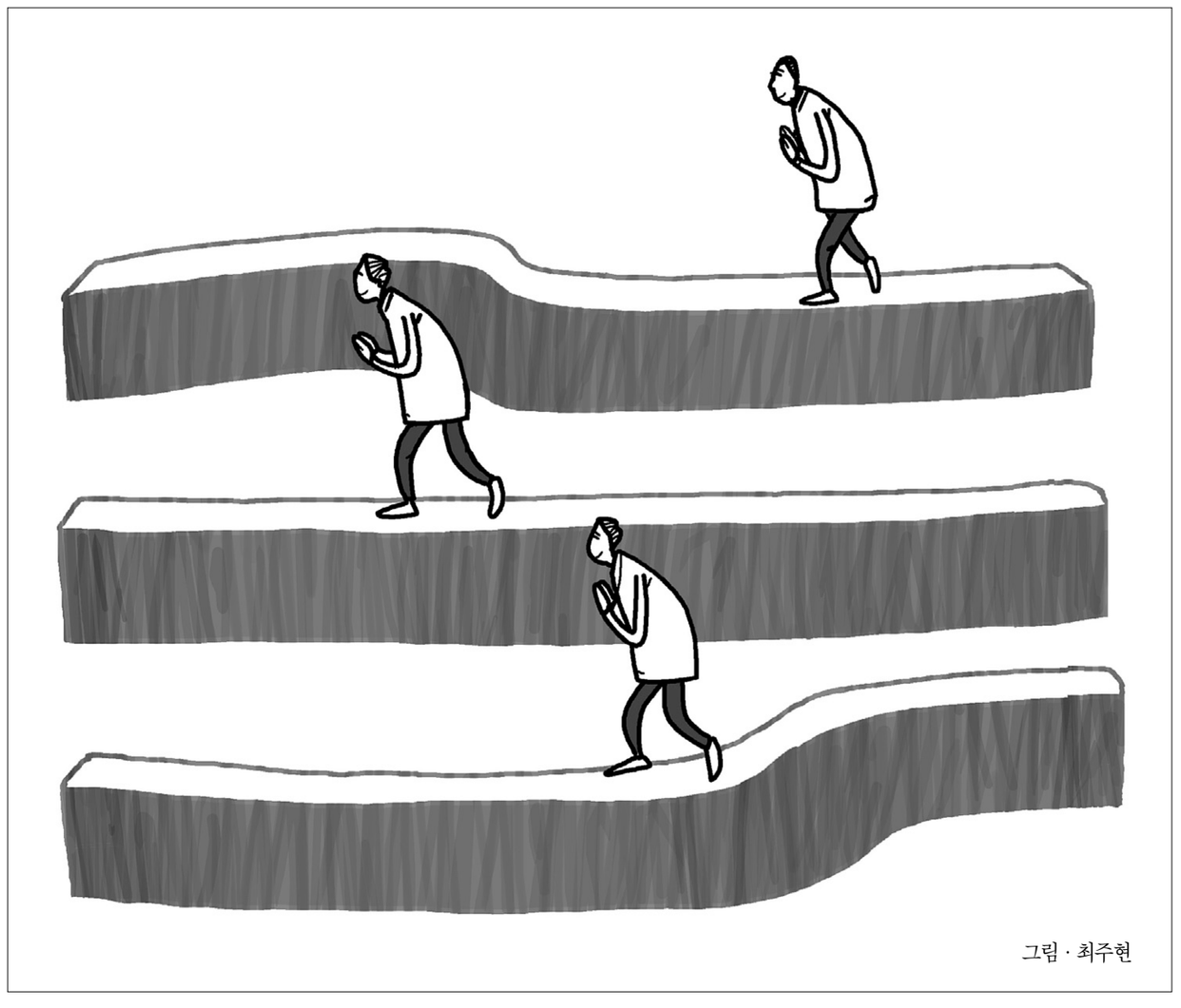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통신이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주처에만 그 통신처가 있거든요. 딴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통신처가 돼야만이 이 통신이 하달이 돼서 전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상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중세계에도 하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신계의 요건을 모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상세계의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그 별성을 다스리는 용도라든가, 생사처의 교차로에서 차원에 따라서 배출시키는 그 부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데가 (가슴을 가리키시면서) 여기에 접근이 되면 그게 제가끔들 소임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접근해보고 둘 아니게 돼보는 반면에 느끼고 알게 되면 상세계까지도 공법으로써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그 차원을 다스려서 생산처로 보내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생사를 가름하는 생사처에서 그 차원을 다스려서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고, 올려보낼 건 올려보내고, 승진시킬 건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하달처로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거죠. 둘로 보면 절대로 그게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통신처에서 서로 둘 아니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면 만약에 태양이 축소되거나 팽창되거나 이래도 어떻게 까딱해 볼 수가 없고, 물로 인하여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까딱해 볼 수가 없고, 산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모두 갈갈이 흩어지고 지구가 쪼개져도 그건 까딱해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우리 마음들이 거기 주처에 놓을 줄 알아야 빛보다 더 빨리 통신이 돼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깐 최상의 원동력을 가졌다는 보배로 자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주처의 한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마음' 다르고 '마음' 다릅니다. 이 몸 안에 들은 모든 생명체와 같이 둘 아니게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바깥의 일체 우주와 더불어, 삼세(三世)가 더불어 같이 통신이 되면서 하나로 구성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나툼이 있어야만 이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자가발전소는 바로 여러분이 제가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직결이 돼 있으니까 내 전화통이 있는 데다가만 통해서 전화를 하면, 생각만 하면 그게 한생각이 되어서 통신이 되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한생각 하는 거하곤 달라요. 한생각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거기까지 통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핼리혜성이 부딪치면 어쩌나 하고요. 애가 끓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피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을 쓰는 그 도리를 이 주처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저리로 가거라 했으니까 그 마음이 거기까지 통신이 돼서 핼리혜성하고 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냥 비켜가는 거죠. 만약에 악이 나한테 덤볐다 할 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이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선이 돼버리죠. 이것이 모두가 지혜로써 자유권을 얻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아는 거를 따져서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법계에서 얽히고설켜 영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고 무심으로 살라 이런 겁니다. 왜 무심으로 살라 하나? 그럼

☞26면으로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buddhanews.com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고 무심으로 살라

☞25면에서 계속

무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더불어 같이 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뛰어라 이겁니다. 뛰어라. 생각이 났으면 뛰어라. 뛰는데 뛰는 사이 없이 뛰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자취 얘기를 잘하는데 뛰되, 뒤의 발자취를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뛰는 사람이 발자취 생각합니까? 걸레를 빨아서 세숫대야에다 탁 팽개칩니다. 만약에 그게 금덩어리 같았으면은 착이 붙어서 세숫대야에 탁 팽개치지 않을 겁니다. 금덩어리도 헌 걸레 빨아서 내던지듯 그렇게 던져 놓으세요. 그렇게 아무 데나 팽개쳐 놓는 것이 오히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지, 어디다 꽁꽁 뭉쳐서 감춰놓는 거는 더 잘 찾아가죠. 도둑이 생각할 때도 아무 데나 금을 팽개쳤을 리가 없으니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으로써 살게 되면, 여유가 있고 참다운 삶이 있고 생사를 초월하는 삶이 있고 너그럽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삶이 있다 이겁니다.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믿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반복한다' 이런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달라지고 소임도 달라진다는 거죠. 탤런트가 자기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어떠한 역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가 한 대로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니 정말이지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써 입력을 해라, 주인공에게 모든 거를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한다. 그 오신통은 바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와 같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이 천차만별의 마음을 쓸 수 있습니까? 마음은 그냥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돌아갑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을 어떻게 마음이 이걸 했느니 저걸 했느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닌 한마음으로서 그냥 여여하게 초월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며, 함이 없이 한다 이런다면 그것은 아주 최상의 평등공법(平等空法)이죠. 마음이라는 게 참 괴상하기도 하면서 아주 영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어려운 살림에 자식들 장가들이고 시집 보낸다고 금을 사다 놓은 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랬는데 고양이를 갖다가 시루에다 찌면 그게 비틀어지는 대로 도둑이 비틀어진다는 소릴 듣고 고양이를 시루에다 쪘답니다, 산 거를. 그러니깐 비틀리면서 눈을 똥그랗게 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달부터 그 며느리가 어린애를 가졌는데 고양이를 낳았거든요. 마음이 고양이의 마음도 있는 거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L.A.에서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를 그냥 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고통을 견디질 못해서 비틀고선 쳐다보면서 죽더랍니다. 그런데 그달부터 어린애가 있어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았다고 해서 전화가 오고 야단법석이 났었습니다.

이러한 거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는 다 늙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다음에 또 젊어서 나올 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정자와 난자,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야만이 삼합이 합쳐집니다. 공자님 어머니는 공자님을 낳을 때 6년을 기도해서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서 어린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든 어찌해서 인연이 됐든 악해도 인연이 되고 선이라도 인연이 되고 그러거든요. 선의 인연으로써 내 자식이 됐다면 아주 평화스럽고 좋지만 악의 인연으로써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아주 평화롭지가 못하고 가정의 분란이 끊일 사이가 없이 일어나죠.

> 만약이 악이 나한테 덤빈다 하더라도
> 둘로 보지 않는다면
> 어떻게 악이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애타는 마음에서 인연이 되고 악연으로서 아주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게 인연이 된 사람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깻벌레나 거미 얘기처럼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선 중간에 가서 그냥 딱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까지 아주 잘합니다. 잘하다가 그냥 탁 죽어버려요. 탁 죽으면 가슴에 묻어버리죠. 그 자식이 가슴에 묻어진단 말입니다. 악연의 그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니까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악연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젊으나 늙으나 남녀를 막론해놓고 어떤 사람도 소홀히 볼 게 아니죠. 예전에는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줄지 않고 병으로 자꾸 연관되고 있죠. 자식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쪽은 병신이고 한쪽은 성하다,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배가 붙었다, 뭐 이런 문제 등등이 벌어지는 게 전부 그런 연관성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수습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식들을 귀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시되 이 뜻을, 항상 관(觀)하는 뜻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하느리라. 네 뿌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모든 그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느니라.' 하는 걸 가르치세요.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앞서의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니깐요. 무너지는 반면에 새로이 입력한 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 붙을 데가 없다 이런 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러는데, 그럼 왜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발자취를 볼 때에 벌써 아까 여기로 걸어올 때의 뒷발자취는 없어졌습니다. 가버렸어요. 가버렸으니깐 없고, 미래로 걸어갈 거는 아직 걸어갈 게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에는 그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것 한생각으로써 입력하는 데 문제가 달려 있다 이겁니다. 한생각 입력하는 데서 업보가 오고, 착을 두는 데서 인과가 오고 그러는 거죠, 유전성이 오고. 영계성도 착에서 오는 겁니다. 타의에서 영계성이 오든 자의에서 영계성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착, 욕심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애정도 그래요. 누가 애정을 갖지 말라나 사랑을 하지 말라나요. 사랑을 하고 애정을 갖되 순간 순간 그렇게 했으면 줄창 쥐고 있지 마라. 발자취처럼 그냥 걸어왔으면 그냥 내버려라 이거죠. 그것을 입력을 하고서 돌아서면 그게 정통으로 입력이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나오는데, 입력을 할까 말까 이러다가 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입력이 되질 않아가지고는 다시 그게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니 과감히 버리고 살아라. 뒷발자취를 과감히, 내가 걸어온 거 어떻게 됐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살아라 이 소립니다, 하긴 하되.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 마음이 탁 틔여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너그럽게 매사에 대해 다 써놓으시고 다 말해놓으시고 나중에 "그냥 여여하니라. 그냥 공(空)했으니까,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라." 이랬는데, 왜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못 살고 그렇게 '아, 이게 옳지. 이게 옳으냐? 이것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되고.' 이렇게 걸리고 매여서 삽니까?

요즘 보면 집을 판다, 땅을 판다, 또 병이 났다 뭐 또 산소를 쓰고선 사람들이 그냥 재차 죽는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죠. 반드시 믿고 입력을 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산소가 잘못 써졌어도 영혼만 딱 건져내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 써서 자꾸자꾸 이렇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되니까 이 착을 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딴 데다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대충대충 얘기했지만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 끼어든 사건들입니다. 자식들이 나와서 별짓 다 하고 뛰어다니게 하는 것도 마음의 탓입니다. 그건 자식들의 육체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 뿌리나 내 뿌리나 둘 아닌데 저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진짜로 믿고 통신이 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못하는 것은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깐 영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종 문서를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과감히 종 문서를 탁 팽개치고 입력을 해놓고선, 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식들도 다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말은 한다 하더라도 이 뜻을 모르고 실천을 모르고, 공법(空法)의 용도를 모르고 그런다면 이 말은 그대로 한데 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전부 말입니다. 아까 고양이 얘기 했지만 고양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집엘 들어가니까 사람인데 의식은 개예요. 그렇지만 말은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두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번 더 사람을 거쳐서 사람의 행과 도리를 배우고 그 순서가 완벽해야 세 번째 가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습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뭘 합니까? 고양이로 살고, 개로 살고, 구렁이로 살던 습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는 만날 그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사는 걸요.

그러니까 그 습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남이 하는 걸 가만히 살펴서 자기가 사람 노릇을 한다면 다시 요다음에 한 번 더 중간 사람으로서 또 태어나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의를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살아야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로써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못해도. 그러나 부모의 은혜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러다가 그냥 낙화처럼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지옥거리죠. 하하하.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잘 보세요. 지금 애틀랜타인가 거기서 올림픽인가요, 뭐 운동하는 것도요, 눈을 노리고 말입니다, 그거를 이기라고 그냥 힘을 쓰고 이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나죠. 한번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던 이 사람네들이 꼭 그거만은 이겨야지.' 이러고는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질게 마음을 쓰고 이러니, 사람이 가슴이 그냥 탁 터지는 것 같고 온통 불안하고 야단이 나죠.

그런 문제도 문제거니와 생활하는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씩 웃고 '허,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믿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럼, 오히려 가다가도 돌아서게 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묘한 구석이 있는 도립니다, 이게. 가라 그러면 돌아서고, 오라 그러면 가고 이러는 도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너그럽고 지혜롭고 둥글고, 둘 아니게 볼 수 있다면 모두 너그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 갖은 노력을 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전력을 다해서 이기는 걸 보면 뭐 하나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월 화, 금요일 오후 2시, 7시

■ 기 간 : 1개월 과정(실습위주. 2박 3일가능)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536-6번지

053)474-5959 / 010-3535-9797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이종옥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클린 사이버 세상, 개개인의 노력필요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터넷은 산업사회의 철도나 도로 또는 전력망과 같은 국가기간망과도 같다. 현재의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의 은행 관련 일을 인터넷뱅킹으로 해결하고, 인터넷쇼핑몰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주요 컴퓨터들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심지어 군의 지휘체계도 인터넷기반으로 구축되고 있기에 가히 인터넷은 국가의 중추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시설로 자리잡은지 오래이지만 지난 7일 오후에 시작된 '7·7 인터넷 대란'은 보안의식이 결여된 정부와 컴퓨터 사용자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의 'CIH 바이러스 대란', 2003년의 '인터넷 대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이버 공안(公安)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 결과 이번 '7·7 사이버 대란'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 빈약한 대응기술 수준만 보여 주었으며, 개인은 그들의 PC가 인터넷 대란을 일으키는 좀비PC의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할 첫 번째 임무가 공안(公安)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행태로 인해 공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일부 있겠으나 공안의 원래 뜻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범죄자가 넘쳐 우리는 밤길을 걸을 수도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도 못해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붕괴될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번의 디도스 공격에 무력한 보안취약국가임을 전 세계에 노출하였기에 창피함은 둘째 치고 향후 또 다시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사이버전쟁에 휘말려 중요한 사회기반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은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디도스(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란 수많은 개인 PC에 해킹기술로 웜바이러스를 이식해놓고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대해 일제히 수많은 접속요청을 보냄으로써 서버나 인터넷 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일시적으로 몰려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동시에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해 노력하듯이 클린 사이버 세상을 위해 합심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와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을 버릴 수 없다면 정부는 차선과 신호등과 같이 적절한 도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 기반 시설의 보안체계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에 대해 정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듯이 PC 사용자는 정품 백신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PC 치료를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좀비PC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사회를 유지할 때 질병과 범죄가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듯이 인터넷 사이버 세상도 우리들이 청결하게 지킬수록 외부의 범죄자들이 감히 침입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건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지리산 야단법석'에 거는 기대

올 여름 불교계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부터 4박 5일이란 짧지 않은 일정으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야단법석은 불교계에서 흔히 개최되는 여느 법회나 세미나 워크숍 등과 다르다.

무엇보다 내용의 차별화가 눈에 띈다. 많은 불자들이 탄식하듯 '불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한다. 불교 밖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올 가을을 의식해 '제발, 조용히 넘어 갔으면'하고 바라는 말들도 심심찮게 들린다. 지리산 야단법석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탄식의 선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측에서도 야단법석을 통해 뭔가 '큰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회의 방법도 새롭다. '선지식'의 발제 강연에 이어 사부대중이 아무런 각본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발제를 맡은 '선지식'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이 법회에 참여하는가에 법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주최측의 기획의도에 부합된 말과 행동이 필요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토론문화는 좋은 것이다. 부처님도 토론을 통해 중생을 교화했다.

모처럼 기획된 야단법석이 한국불교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승만보살'의 10대원으로 살자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여성불자들이 '승만부인'의 10대원을 지키겠노라 부처님께 서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가졌다. 그간 불교의 전통 속에는 승만보살의 10대원을 수계하는 의식은 없었다. 그래서 이 법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고, 무너지는 가정이 늘어나는 시류에 비춰 볼 때 승만보살의 10대원은 매우 큰 가르침이다.

승만보살의 10대 원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은 바로 수계 여부다. 불자라면 당연히 수계를 받아야 한다. 받은 계는 지켜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삶이다. 승만보살의 10대원이 철저한 지계를 첫 번 째로 삼은 까닭도 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만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인색한 마음을 경계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바로 끊임없는 정진을 발원하는 것이다. 복잡한 현실에서 하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 말로 밝은 세상 만들기의 첫 걸음이다. 또 10대원은 베풀고 섭수하며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정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발원이다.

이 같은 발원은 오늘날 여성 불자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승만보살의 10대원이 모든 불자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길 당부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참~쉽죠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절하기'는 현대인의 피로회복제

7월의 테마-휴식

70년만의 폭우가 서울, 경기를 강타했다. 이 장마가 그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휴가철을 챙기기 시작했을까? 농경시대에 휴가는 자연이 내리는 것이었다. 시절인연이 맞으면 농사를 지어 일을 하고, 그것이 불가할 때에는 쉬었다. 농번기가 지나면 농한기가 있었다. 부처님 당시의 안거(安居)도, 우기(雨期)에 바깥으로 다니며 교화하는 것은 득(得)보다 해(害)가 많으리라는 판단아래 정해진 규약이었다. 안거는 밖으로 보내던 에너지를 거둬들여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내면을 더욱 충실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거추장스런 장마를 비껴서 여름휴가를 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무언가를 즐기기에 큰 비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렇게 주어지는 휴가의 기회도 올해는 유래 없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등으로 마음놓고 찾아먹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생각해보았다. '내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언제였던가?' 가장 먼저 결혼 당시가 떠오른다. 결혼은 나에게 오랜 객지 생활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커다란 사건이다. 결혼은 크나큰 안식(安息)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르며 점점 지쳐갈 즈음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숙원사업이던 학위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두 아이를 피해서 확보한 논문 작성 기간은 나에게 달콤한 휴가였다. 논문을 쓰는 내내 얼굴은 화기가 돌았다.

'휴식' 혹은 '휴가'는 '일'의 반대말이다. 논문작성도 그때는 '휴식'이 되었으나, 과제로 부여받았다면 '일'이 될 것이다. 칸트에게 최대의 휴식은 독서라고 했다. 감상문 숙제를 앞둔 학생에게 그것은 일이다. 어느 원로 교수님께서 '운전은 나에게 가장 큰 휴식이야'라고 하셨다. 정말 운전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신다. 그러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 급기야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휴식'이란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지 않다. 고요한 사찰을 찾아 참선을 닦는다 한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참된 안거(安居)라 할 수 없듯이, 상황이 불가피하여 휴가를 쓰지 못하고 직장에 있다한들 마음에 쌓임이 있지 않고 참으로 청량하고 고요하다면 그것이 최상의 휴식이고 휴가인 것이다.

불가(佛家)에는 마음의 쌓임을 씻어내는 비방이 참으로 많다. 그중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가 빠른 것 중의 하나가 '절'이다. 현대인은 만성피로증을 비롯하여 각종 병들을 안고 있다. 잠을 자고 쉬는 것만으로는 몸이 개운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피로나 병은 근본적으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서 생겨난 각종 스트레스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이 원천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현대인에게 '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씻어줄 수 있는 최고의 피로회복제이자 청량제가 될 것이다. 108배로 휴식을 맛본 이는 1080배의 서원을 세우고, 1080배로 휴식을 맛본 이는 3000배의 서원을 세우는 뜻이 여기에 있다. 최상의 휴가를 즐기시길 기원하며…

오 지 연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진 연구팀 전임연구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7. 25(토) 오후 1시부터 ~ 7.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불교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 정착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풍부하고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하여 마치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하다.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포교사들은?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와 소옌 사쿠를 비롯, D.T. 스즈키, 뇨겐 센자키, 소켄이안, 순류 스즈키, 초... 트룽파, 두좀 린포체, 칼루 린포체, 달라이 라마, 선화 대사와 행주 스님, 숭산 스님과 구산 스님, 틱낫한 스님 등 아시아 각국 스님들의 전법 과정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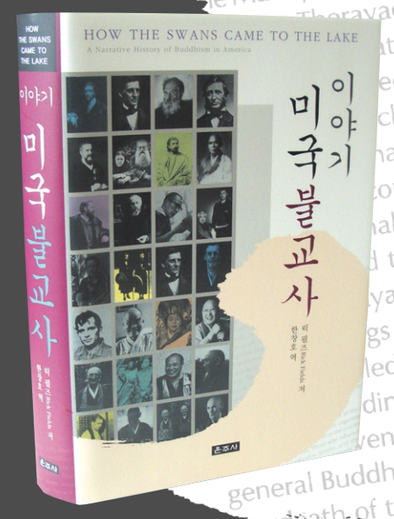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필란지 다사, 폴 카루스, 페놀로사, 비글로우, 잭 케루악, 게리 스나이더, 필립 카플로, 에번스 웬츠,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등의 활동이 상세히 담겨 있다.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재가불교, 생활불교로 특징지어지는 미국불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유럽이 동양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작한 이후 전개되는 불교에 대한 유럽인들의 오해와 진실 찾기의 과정은 동서양 문명교류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현대 한국불교가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불교가 던지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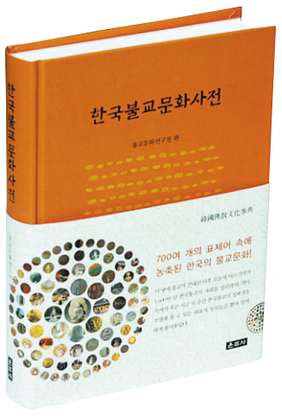
이야기 미국불교사



릭 필즈 저, 한창호 역/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알쏭달쏭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한국불교문화사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 / 국판변형양장 / 508쪽 / 25,000원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외/신국판양장/400쪽/18,000원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우희종, 김진무 외/신국판양장/504쪽/23,000원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면역학에서의 성찰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윤원철 외/신국판양장/396쪽/20,000원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상좌부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구입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